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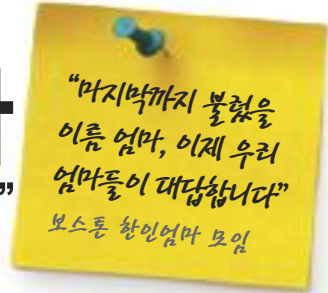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n.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 보스톤 엄마들 뿔났다 세월호, "이제 우리 엄마들이 대답합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 한인 주부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와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지난 18일 오후 2시 하버드 스퀘어에서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한국 내 엄마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미국에 사는 엄마들이 하려고 한다"며 "세계에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려 나섰다"고 입을 모았다.

한시간 가량 진행된 집회에는 검은 복장에 노란 팻말이나 흰국화를 든 주부들 30여명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한편 침묵으로 시위했다. 이들중에는 남편이나 아이를 동반한 주부도 적지 않았으며, 멀리 로드아일랜드에서 아이들을 동반하고 참석한 주부도 있었다.

준비된 팻말에는 "마지막까지 불렀을 이름 엄마, 이제 우리 엄마들이 대답합니다"와 같은 애도의 메세지와 함께 정부의 무능력함과 구조실패 비판, 그리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규탄들이 들어 있었다.



한국 내 엄마들을 대신해 전세계에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고자 추모집회를 열고 침묵시위하는 보스톤 주부들. 유모차를 끌고 가족들을 동반한 주부들도 많았다

또한 이들은 이번 집회에 쏟아지는 소위 '중복세력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이 모여져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사업장 문을 닫고 집회에 참여했다는 한 여성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우리는 그냥 손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라도 애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외쳤다.

이번 보스톤 집회의 연락책을 맡은 한 주부는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언론이 보도하지 못하는 진실을 전세계에 알리고 싶다"며 "세계인들이 세월호 진실을 지켜보고 있으며, 세계 언론이 우리를 지켜줄

## "재외동포, 한국 인터넷쇼핑 가능"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한국 내 인터넷 쇼핑 물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재외동포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20일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의무 사용토록 해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



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세칙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국내외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했던 시행세칙이 사라졌을 뿐, 공인인증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이 아닌만큼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미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온라인 카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한다. 카드사가 흔히 안심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제공하는 '인터넷안전결제(ISP)'와 PG업체 페이게이트가 제공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2014년 할인항공전문

From **\$1116~**

보스톤-인천(왕복!) ONLY 1 Stop

9,10,11월 비수기 출발!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웍을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Drop off Store**

- 인기 핫한 Drop off store
- 좋은 로케이션, 고성능인 손님 / 일년 매출 \$300k 이상
- 저금 리화 주세요. (제이슨 전 617-642-5670)

**DRY CLEANERS**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 세월호 관련 한인회장들의 성명서가 문제인 이유

살을 꼬집어 보았다. 2014년 보스턴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육체적 고통으로 확인해야 했다. 정말 5공말기 전두환 정권하에서 경찰들이 발표한 대국민 경고인줄 알았다. 보스턴, 뉴햄프셔,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장 3분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말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발표한 성명서가 맞는지 믿기가 힘들 정도였다.

미시 유에스에이가 주최한 집회와 뉴욕타임스 광고에 대해 많은 미주 한인들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미주의 젊은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모금운동을 하고 정부비판을 담은 내용을 뉴욕타임스에 광고로 게재하는 것이 일부 한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일 수 있다. 보는 입장에 따라 충분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인회장들이 느끼는 감정을 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인회장들은 개인이 아니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성명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담았어야 했다.

한인회의 입장에서 상당수 동포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개인적 의사

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인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월호 대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모든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던 고개를 끄떡일 수 있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다. 그 사람의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말과 글이다. 한인회장 공동성명서 첫번째 항만 여기에 적어보자 <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맹목적인 반정부 선동에 악용하면서 국론분열을 일으켜 국가적 대응을 방해하는 극소수 동포들의 반인륜적이고도 반국가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뉴욕 타임스 광고가 한국정부의 세월호 대응 정책에 어떤 흠결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언론 탄압을 중단하고 철저하게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미시유에스에이 회원들의 집회가 <반인륜적이고 반국가적 행위> 인지 정말 심각하게 따져볼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수장으로서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

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감당해야 할 비난이고 책임이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를 잘 극복한 지도자야말로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기억이 가물가물 하겠지만 대통령 노무현 때리기는 전국민의 스포츠 같았던 때가 있었다. 그때 그것을 <반국가적 행위>라고 누가 목소리를 높인 적 있었나.

국론분열이란 말만큼 어처구니없는 말도 없다. 민주사회는 다양성의 표본이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결국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를 수렴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이 정치 지도자의 몫이다.

국론분열이란 말을 쓰는 사람은 늘 그 분열의 당사자다. 이미 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면서 다른 입장에 대해 분열이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결코 자신이 분열의 당사자임을 자각하고 싶지는 않아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국론이 통일되는 것은 위험하다. 히틀러의 나

찌나 북한같은 체제에서만 국론이 통일되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다양한 의견 표현은 국론 분열이 아닌 민주사회의 상정이다.

미주 한인사회는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 그리고 3세대 만으로도 충분히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그리고 이민사회와 유학생사회가 다르다. 이민사회도 그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현이야말로 가장 존중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인회의 어려움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그럼에도 한인회가 한인 전체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 속고를 거쳐야 하는지 이번 성명서는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불순, 반국가 세력, 반정부 시위 준동 세력, 엄중 경고> 등 성명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경찰 또는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유사하다. 이번 성명서가 3개 한인회중 그 어느 곳에서도 직접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쉽 리 짐작할 수 있다.

한인회가 대한민국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관변단체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한인회는 여기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 만든 자생적인 단체다. 그렇다면 정권이 아닌 한인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집회를 열었던 광고를 실었던 사람들도 한인이다. 적어도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귀를 기울인 이후에 한인회의 의견을 개진했어야 한다.

세월호는 한국사회 시스템의 총체적인 실패다. 선박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연령 완화, 부적절한 증축 및 무책임한 허가, 부실한 안전점검, 과도한 화물선적 등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사고후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해경의 초기 구조 대응 미숙, 재난 컨트롤 타워 부재, 재난 인명집계 실패, 부적절한 언론보도 및 오보, 구조작업의 실패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깊숙히 침몰했을까.

미주 한인사회도 함께 침몰해서는 안된다.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얼굴이다. 한인회장의 책임은 막중하다. 정확한 길이 아니면 빨리 되돌아갈수록 빠르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 & 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이론 펴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 그레이스 컷팅 클럽

##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1면에 이어서

# 미시 USA 보스톤회원 중심 희생자 추모 집회



“침묵의 위와 함께 세월호 희생자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진상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아 희생자 대책위에 전 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집회현장을 목격하 하버드 방문학



자 김민호 씨는 “어떤 참담함, 미력함을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여기 동포들도 똑같이 갖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며 “다같은 마음임을 느낄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위 소식을 접한 뉴잉글랜드지역 한인회장(한선우 뉴잉글랜드 한인회장, 이동문 로드아일랜드한

인회장, 박선우 뉴햄프셔 한인회장)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마음은 동감하지만 정부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것은 미주 전체 한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 규탄 시위를 반박했다.

hckim@bostonkorea.com

## 한인목회자들도 세월호 성명서 발표 미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자들 기도회 겸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 잡부 = 미연합감리교회 뉴잉글랜드연회 소속 한인목회자들이 세월호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회를 갖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목회자들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는 이 행사는 5월 23일(금) 낮 12시, 보스톤대학 마쉬채플 앞에서 진행된다.

서명에는 21일 현재 12명의 목회자가 참여했고, 4명의 사모와 미국인 목회자들도 동참했다. 서명은 성명서 발표 이날까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정의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요, 고귀한 희생과 노력으로 성취한 민주주의는 몇 십

년이나 후퇴하였으며, 법이 약자의 보호 장치가 아니라 강자의 억압이 수단이 되어버린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두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죄를 통렬히 회개한다.” 고 전했다.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는 “바다로 침몰한 배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던 수 백명의 귀한 생명중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발표와 기도회 현장에서 추가 서명을 받을 예정인 이들은 관심 있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김현천 HyunCheon Kim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오현숙 HyunSook Oh

Graphic Designer  
양성대 SoungDae Ya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레이디경향  
617-775-8474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SAT Plus

## SAT Plus Summer Schedule 2014

June 7/7 - 7/25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August 8/4 - 8/22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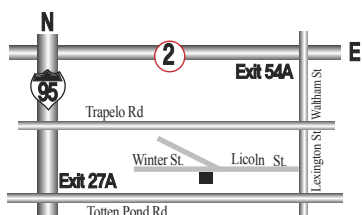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한인회장들 공동성명, “신중치 못했다”

## 보스톤,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이례적 성명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세월호 참사를 놓고 보스톤 한인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및 한국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한 직후, 보스톤 지역 한인회장들이 이례적으로 과격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성명서의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보스톤뉴잉글랜드한인회 한선우 회장과 로드아일랜드 이동문 회장, 그리고 뉴햄프셔한인회의 박선우 회장은 지난 20일 한인회보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맹목적인 반정부 선동에 악용하면서 국론분열을 일으켜 국

가적 대응을 방해하는 극소수 동포들의 반인륜적이고도 반국가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들 한인회장들은 성명서 내용에서는 한발짝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한 한인회장은 23일 보스톤 코리아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인회 자신만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한인회보에 게재된 한인회장 공동성명서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잇따라 게재된 박근혜 정부 비판 광고에 유감을 표명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위

”라고 표현했다.

또한 광고 게재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적법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 준동 세력에 대해 250만 미국 전체동포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성명서가 발표되자 한인들은 “한인회장이 한인회를 대표한다지만, 한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 맞느냐”, “한인회장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낸 것 맞느냐”는 등의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박선우 뉴햄프셔한인회장은 “비록 성명서의 취지에는 공감해 동의했지만 한인회는 평통 등과 달리 한인들을 대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는데, 성명서에 과격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자신만의 다른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유감을 전했다.

로드아일랜드 이동문 회장 역시 “빠른 시일 안에 성명서를 만들다 보니 다른 곳에서 가져 온 것을 토대로 했고, 그러다 보니 신중치 못했다”고 밝히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과격하게 비쳐진 것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회장은

“한인회 자신만의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스톤뉴잉글랜드 한인회의 한선우 회장은 “세월호 참사로 이를 수습하고 빨리 회복해야 할 시기에 뉴

욕타임즈 등 일간지에 보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으며 한인전체의 의견인 것만양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견을 밝혔다. hckim@bostonkorea.com

### 성명서

(보스톤 한인회장, 뉴햄프셔 한인회장,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비통에 잠겨있는 이 시기에 미국에 있는 극히 소수의 동포들은 맹목적인 정부비판이나 매도가 자신들의 목적인 양 최근 5월 11일자 뉴욕 타임즈와 5월 16일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 모략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정부퇴진 시위를 벌이는 등 터무니없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에게 또한 번의 깊은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전체 해외동포가 한마음으로 화와 지혜를 모아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할 시기에 여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일부 동포세력의 왜곡된 주장이 250만 미국 동포들의 전체 의견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뉴잉글랜드 지역 연합 한인회는 세월호의 희생자분들을 가슴 깊이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진심 어린 위로와 조의를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맹목적인 반정부 선동에 악용하면서 국론분열을 일으켜 국가적 대응을 방해하는 극소수 동포들의 반인륜적이고도 반국가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불순하게 외국언론에 기대어 250만 재미 동포사회 전체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를 실수시킨 반국가 세력은 즉각 자신들의 실체를 밝히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국민과 동포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정성을 모아 성금을 하는 이 시기에 희생자 및 그 유가족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 성공으로 모국을 비난하는 일회성의 광고에 치중하는 모습은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아픔을 더욱 크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깨닫고 이와 같은 돌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적법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 준동 세력에 대해서는 250만 미국 전체동포의 이름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세월호 실종자 추적,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지원, 사고 책임자 처벌 및 실질적이고 안전한 한국가재난 방지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각고의 노력을 응원하며 이에 동포사회도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조국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불행은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안전하고 살기 좋은 조국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곡히 소망하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

2014년 5월 20일

보스톤 한인 회장 한선우 / 뉴햄프셔 한인 회장 박선우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이동문



##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http://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뉴잉글랜드한인회 BU 학생회장들과 간담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회 한문수 수석 부회장은 지난 13일 보스톤 대학교 (Boston University, BU) 한인학생회 소속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입 학생회장이자 한인회의 학생부장으로 봉사해 오고 있는 염승헌 군과 지난해 학생회장이었던 권민선 양, 그리고 김승연 양이 자

리했다. 권민선 전 회장이 한해를 돌아보며 “BU 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자 염승헌 신입 회장은 “권민선 전임 회장의 노력을 이어받아 더욱 학생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보스톤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일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BU 학생회장들과 간담을 나누는 한문수 한인회 수석부회장

한인회의 한문수 수석 부회장은 염승헌 군이 한인회의 학생부장으로 열심히 봉사해온 것에 감사를 표하고 신입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BU 학생회와 한인회간에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보스톤 사회

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어 김승연 양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포토 에세이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 에세이는 험프리 팰로우십 프로그램으로 세계 각나라를 소개하는 것

이다. 한국은 이프로그램에 첫번째 나라로 선정되어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포토에세이를 만들게 된다.

포토 에세이가 완성되면 미국 전역의 초등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돼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회는 지역사회와 각 대학 학생회와의 협조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어느 대학 학생회든지 한인회와의 만남을 원하면 뉴잉글랜드 한인회 (haninhoebo@gmail.com) 혹은 한문수 수석 부회장 (moon.econ@gmail.com) 에게 연락해 주기를 바랐다.

hckim@bostonkorea.com

##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사업보고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회장 김성혁) 16기는 지난 17일 토요일 뉴튼에 위치한 총영사관저에 초대받아 염성준 신입 총영사와 상견례를 나누는 후 사업보고회를 했다.



염성준 총영사와 상견례를 나누고 업무보고를 한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위원들

행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 후 조촐하게 진행됐다.

황우성 간사는 한국 평통 미주지역 대회에서의 보스톤협의회 의 모범적 활동을 보고했다. 이어 김성혁 회장은 염 신입 총영사를 환영하며 “미주의 중심 도시 보스톤에서 대한민국 국위 선양을 위한 여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획중인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염 신입 총영사는 “보스톤의 주요 영향력을 인식하고 차세대 지도자들의 양성에 힘쓸 것이며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등에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와 정책협력 등 유관 사업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 월드옥타 차세대경제인 양성 현지무역스쿨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월드옥타가 차세대무역스쿨 해외현지무역스쿨을 전세계 16개국 39개 도시에서 개최한다.

차세대 무역스쿨은 차세대 경제인 발굴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3년부터 국내외 무역실무 교육을 통해 경제 리더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고양시켜온 프로그램이다.

현지무역스쿨과 모국방문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지무역스쿨은 월드옥타 지회에서 진행하고 모국방문교육의 경우 현지무역스쿨 수료자 중 우수한 성적의 수료생을 선발,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년 간 총 1만4,000여명의 차세대경제인을 양성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 모국방문교육(7월, 경기 양평) 100명, 해외현지교육(6월~8월) 30개 도시에서 1,625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바 있다.

올해 차세대무역스쿨 현지교육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도전프로그램'을 공통 과제로 시행하게 된다. 양성한 차세대를 활용, 실질적인 수출판

로 개척이 가능하도록 국내 중소기업 지원사업단과 연계해 비즈니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다.

무역스쿨 참가자가 국내 중소기업 중 유망기업의 아이템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 또는 창업 계획 수립과 제를 부여받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계획안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의 후 지원 가능한 사항 협의 등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또는 해외진출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는 공동 주최기관인 성남시 산하 중소기업 중 75개의 중소기업 아이템을 선정해 도전프로그램 과제로 진행한다.

hckim@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 한국문화 공연 뜨거운 호응

## 우번시 다민족 축제 'WorldFest'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우번(Woburn)시에서 한국문화를 알린 공연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 17일 토요일 우번 YMCA 등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연례 행사는 올해 여덟번째 이루어진 'WorldFest' 로, 우번 시에 거주하는 다민족들이 참가하여 공연 및 음식 등으로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 문화와 전통도 소개됐다. 지난해부터 참가해온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한국무용팀(지도 박찬희 교사)이 화려한 부채춤과 꽃바구니춤을 선보인 데 이어 구 태권도 아카데미 사범팀이 태권무와 송관 격과 등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여덟번째 이루어진 우번시 다민족 축제 'WorldFest' 에 참가해 한국문화를 알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들

또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조항민 군과 최재경 군은 부모와 함께 참여해 한국 음식을 시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 안내책자, 문화용품 전시 등을 통해 한국 알리기에 최선을 다했다.

최재경 군과 부모들은 행사 참가자들에게 태극기 견본에 참가자들이 직접 색을 칠하고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번 2014년도 'WorldFest' 에는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브라질, 쿠바, 러시아와 유럽 등 각 대륙별, 나라별 대표적 문화 공연과 다양한 야외 행사 등



이 이루어졌다. 뉴잉글랜드 한인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Woburn시는 한인 의 날 제정 및 상호 주요 행사 참가 등

한인 커뮤니티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 바이올리니스트 이주미 협연

### 보스톤한미예술협회 봄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이사장: 이충시, 회장: 김병국)가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오는 6월 1일 (일) 오후 3시 30분,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세인트 폴 교회(St. Paul's Episcopal Church, 15 St. Paul St., Brookline, MA)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뉴잉글랜드 음악원 예비학교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주미 씨를 중심으로 이 씨의 스승이자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인 제임스 버즈웰(James Buswell)이 특별 출연하여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연주하며, 첼리스트 샘 오(Sam Ou)와 피아니스트 김자영 씨가 함께 연주한다.

이주미 씨는 영국의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보스톤 대학교에서 음악학사 학위를 받은 실력 있는 연주자로, University of Denver at Colorado College에서 상주 예술단체인 다빈치 퀴르렛의 멤버이자 바이올린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U-Mass 보스톤과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가르친 바 있다. 9월부터는 스탠포드 대학교로 이직,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되므로, 이번 연주는 오랜 보스톤 생활을 정리하며 음악을 통해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은 모짜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듀오, K. 423', 드보르작과 차이코프스키의 소품들, 프로코피예프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op. 56', 슈만의 '피아노 퀴르렛, op. 47' 로 구성되었으며, 바이올린이 포함된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 입장권은 일반 \$10, 학생은 무료이며 www.kcsboston.org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전화: 617-939-3477)

hckim@bostonkorea.com



▶▶ 1면에 이어서

###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

했던 '금액인증' 방식 등이다.

카드사의 ISP결제는 앞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가능했던 30만원 미만 온라인 소액결제에 사용돼 왔다. 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 방식은 과거 한때 서비스되다가 카드사가 일제히 연동을 거부하면서 쓸 수 없게

됐다. 즉 기존 소액결제처럼 30만원 이상 온라인 카드 결제에도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는 수단의 확산 여부는 카드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들이 대체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카드결제 환경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

hckim@bostonkorea.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보스톤코리아 여행후기 당선자 발표

## 1박2일 보스톤여행기, 총 4명 당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코리아가 '제1회 여행후기 공모전'의 당선자를 발표했다. 보스톤코리아는 지난 4월부터 근 한달간 공모했던 '1박2일 보스톤 여행기' 당선자를 2등 3명, 3등 1명, 총 4명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자 중1등에 선정된 대상자는 없으며, 공동 2등에는 '보스톤 뚜벅이 여행하기'를 쓴 유한나, '미국 역사공원 순례'를 쓴 장수인 씨, 그리고 '보스톤 1박2일 즐기기'를 쓴 김철 씨가 당선됐다. 3등 당선자는 '내가 정한 It Place'를 쓴 테디 한 씨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는 보스톤코리아 기자단이 선정기준에 맞춰 채점한 것으로, 가장 우선 순위에는 '색다른 아이디어'다.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잘 알렸는지에 중점을 둔 것. 이어 ▲1박2일 여행 계획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글이 얼마나 재미있고 충분한 자료 및 사진 등을 첨부했는가? 순으로 점수를 매겼다.

보스톤코리아의 장명술 편집장은 "이번 공모전에 1등이 없는 이유가 장 높은 점수 비중을 차지한 '색다른 아이디어'가 부족하 데 있다" 며 아

쉬움을 표했다. '이어 1박2일 여행 일정에 충실한 작품은 2명밖에 없었으며, 체험담을 밀도있게 표현한 작품은 1박 2일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2등 입상자들에게는 100불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이, 3등에게는 50불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이 지급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공모자들은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상품권을 받아가면 된다.

또한 수상작들은 보스톤코리아 22호부터 한판씩 게재될 예정이다.

보스톤코리아는 추후 정기적으로 보스톤 여행후기 공모전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hckim@bostonkorea.com

구개음화는 ㄷ/ㅌ이 중성모음 'ㅣ'를 만날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꽃밭이'일 때만 [바치]로 발음되고 나머지 경우엔 'ㅌ'음가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아무데서나 구개음화를 쓰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요 가사에 흔히 나오는 '내 곁을'도 [내겨뜰]로 발음해야 합니다. 드라마의 [끄츨]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끄뜰] 궁금해하는 겁니다. ("끝을") 맑은 날 [벼츨]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벼뜰] 좋아하는 것입니다. ("별을")

## 동포재단, 제2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 6.1-7.31 코리안넷, 재단홈페이지 접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재외동포 사회를 한국 내에 소개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재외동포사진전'이 개최된다.

올해로 두번째 개최되는 사진전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맞아 개최하는 것으로, 주제는 △코리아타운 △

재외동포 삶의 현장 △세계 속의 한인 으로 재외동포의 모습을 담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사진으로 응모할 수 있다.

거주국 내 5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장기 체류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 또는 재외동포재

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1명)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입상(11명) 3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수상작과 우수작 등 100여점은 오는 10월 열리는 본 사진전에 전시된다.

조규형 이사장은 "공모전을 계기로 우리 국민이 해외 720만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hckim@bostonkorea.com

## 선교 골프대회,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가 매년 개최하는 선교골프대회가 오는 6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하버힐에 위치한 크리스탈 레이크 골프 클럽(Crystal Lake Golf Club)에서 개최된다.

대회 참가비는 1인 100불/ 부부 180불이다. 대회 준비 비용을 제외한 참가회비 전액은 지역 선교비로 사용된다. 참가신청은 장병준 장로(978-979-

7064) 나 이정수(781-654-7744) 집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대회일정 : 2014년 6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 대회장소 : Crystal Lake Golf Club / Haverhill MA

참가회비 : 1인 회비 : \$ 100.00 부부 회비 : \$ 180.00 Crystal Membership : Course Rate 공제

bostonkorean@hotmail.com

## 보스톤한미노인회 컴퓨터 기초반 강좌 시작

보스톤봉사회 윤희경 회장 강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미노인회(회장 유연심)는 지난 21일 수요일부터 컴퓨터 기초반 강좌를 시작했다.

강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아이폰(전화), 랩탑, 아이패드 등을 지참하면 된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은 당일 강좌를 들은 후 준비해

도 된다. 매달 첫째주와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사랑방 모임은 커피타임과 함께 친교를 나눈 후 45분간 건강운동을 하고, 12시

부터 1시까지 간단한 점심식사 후, 각 프로그램별 강좌가 시작된다.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합창반, 컴퓨터반, 기타반, 사

물놀이반, 탁구반이 있다. 유영심 회장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라도 환영한다"며 "많은 노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여름방학 준비, 미리 본 지역 학원 프로그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여름방학을 앞두고 지역 입시 준비 학원들이 수강생 맞이에 분주하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SAT준비에 박차를 가할 학생들의 발걸음에 대비하는 것.

매년 고득점을 위한 전략으로 새무장하는 보스톤 지역 학원들이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것들을 미리 받아봤다.

### 보스톤 교육원

벨링턴에 위치한 보스톤 교육원을 올 여름방학을 맞아 SAT 1준비반과 SAT I 실전문제풀이 집중반(토요일), New SAT 준비반, 그리고 저학년(4~5학년)을 위한 reading & writing class를 운영한다.

SAT I 준비반은 본격적으로 SAT I 시험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3주 단위의 독립된 3 세션(ses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금, 매일 3시간의 수업과 실전문제 및 단어 테스트, 평가 등이 포함된 종합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3주간 집중적으로 SAT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09:00~17:30).

영문학, 공학박사 학위자 및 논문첨삭 전문가 등 10년 이상 수업경험이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며 한반에 3~8명 정원의 소그룹으로 운영된다.

실제 SAT기출 단어와 문제들로 매

일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등 학생 및 학사관리에 신경쓴다. 한 세션 당 \$950로 수강료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SAT I 실전문제풀이 집중반(토요일)은 기본적인 시험준비가 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실전문제풀이 위주(5시간)의 수업과 풀 세트의 실전문제테스트가 3주에 걸쳐 진행된다. (\$450/3주). 3 세션 모두 다른 테스트 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세션을 듣는 것도 가능하다.

그외201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형태의 SAT를 준비해야 할 8~9학년 대상 New SAT 준비반, 저학년(4~5학년)을 위한 reading & writing class가 진행된다.

### SD ACADEMY

체스넛힐에 위치한 SD ACADEMY는 10년 경력의 오승준 원장 직강과 '실전 위주 학원 자체 제작 교재' 사용으로 유명세를 탄 곳으로, 이번 여름방학동안 SAT/ACT 반, 수학/과학 선행 반, Essay Writing 반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SAT/ACT 반은 시험 범위 내 필수 이론 정리는 물론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유형을 실전 대비 형식으로 연습해 효율적으로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수업이다. 학생의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레슨 플랜으로 취약점을 완벽히 공략한

수학/과학 선행반은 전공별 강사진과 함께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교과서를 통해 개념의 이해 +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배울 수 있다. 월반 시험을 볼 예정인 학생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코스다.

Essay Writing 반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능력을 키우는 수업으로, TOEFL부터 SAT, 대학 원서까지 모두 요구되는 글쓰기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준다. 기본 문법과 고급 어휘, 글의 취지에 맞는 세련된 표현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 SAT PLUS

월담에 위치한 SAT 플러스는 20년이 넘는 티칭 경험으로 학생 개개인에 맞춰 집중 SAT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Reading, Writing, Math, Essay등이 준비돼 있다. 실전 테스트도 겸하며 College Essay도 준비한다.

개인 지도는 Math, Biology, Chemistry, Physics 도 겸하며 한상훈 원장이 직접 지도한다.

### 선진학원

렉싱턴에 위치한 선진학원은 SAT I Reading, Math와 함께 필독서 읽기(Required Book Reading)를 4주 코스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다.

오는 6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클래스당 5명 이상이 되어야 오픈한다.

English Literature, US History,

Calculus AB/BC, Physics, Chemistry, Biology, Latin, Computer 등 모든 과목 AP준비과정 및 SAT Subject 준비 과정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들을 수 있다. 특히, AMC8, AMC 10, AMC12, AIME등의 수학 경시 준비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 테스(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한 테스(The Academy at Harvard Square/ 구 HSA)는 Critical Reading 과 Writing을 한단계 Step Up 하는 Narratives, Research and Exposition, The Art of Persuasion, SAT Boot Camp 와 ESL 학생을 위한 Transitional English Class 를 소규모반으로 오픈한다.

3-5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Narratives반은 작가의 입장에서 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문학적 요소를 익힌다. 6-7학년 학생을 위한 Research and Exposition 논픽션 도서를 중심으로 독서분석, 비판적 사고와 추론 능력을 기른다. 8-9학년 학생들이 대상인 The Art of Persuasion클래스는 2016년에 개정되는 새로운 SAT 시험 대비로, 주어진 글을 읽고 각 작가가 어떻게 주장을 펼치며,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10-11학년을 위한 SAT Boot Camp는 Reading and Writing section의 강도높은 수업이 진행된다.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단어가 사용되는지 단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며 매일 모의고사가 진행된다.

### 와이즈 프렙

자녀가 현재 8학년이라면 와이즈프렙의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고교 수학 완전 정복" 수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수업은 Algebra, Geometry, Pre-Calculus 등 고교 수학의 Big

Picture를 Geogebra를 통해서 완벽히 선행하여 고등학교 내내 수학에 자신감을 갖게 해 주도록 기획되었다.

한편, 이공계에 재능과 적성, 그리고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Research 101", "Advanced Research", "수학 올림피아드 첫걸음", "초등/중학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C++/Java와 컴퓨터 알고리즘" 등 특수한 강좌들도 기획되어 있다.

"Research 101" 과 "Advanced Research"는 '세계적 수준'의 독자적 연구를 위해 와이즈프렙의 전문 강사진과 하버드/MIT 포닥들의 멘토십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텔 STS 등을 목표로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유익하다.

"수학 올림피아드 첫걸음"은 AMC8과 AMC10/12 및 AIME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였다. 추후, 경시 수학의 최상위 레벨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IMO 출신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초등/중학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흥미롭다. 컴퓨터 코딩을 통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키우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나 로보틱스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은 어린 학생들에게 권한다.

컴퓨터 알고리즘을 학습하여 고급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는 "C++/Java와 컴퓨터 알고리즘"도 여타 학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수업.

물론, SAT 여름 방학 특강과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AP Preview (Calculus, Physics, Chemistry, US History, Biology, Computer Science)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hckim@bostonkorea.com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 경찰 불법이민자 이유만으로 구금 못해

서머빌 시,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 더이상 따르지 않을 것  
조셉 커테이톤 시장 행정명령, 다른 타운 뒤이을 듯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머빌 시 조셉 커테이톤 시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 경찰이 이민단속국에 넘기기 위한 이유만으로 이민자들을 구금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방 정부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커테이톤 시장은 21일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자동차 조명이 고장 난 채로 운전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추방시켜 가족을 생이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고 지적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이나 주 경찰이 체포한 모든 사람들의 지문을 이민단속국에 조회토록 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보스톤 시 등 몇 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보스톤 시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원과 이 프로그램을 엮어 강제로 받아들여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주요 형사범죄자 뿐만 아니라 단순 교통법규위반으로 걸려든 이민자들이 불법이민자임이 드러나면 이민법 위반혐의로 이들을 구금해 이민단속국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됐다. 결국 이로 인해 추방자 수는 역대 최고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2008년 이래 추방된 1200명 중 절반이 넘는 추방자가 형사범죄자가 아니었다.



서머빌 시장 조셉 커테이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역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민자 커뮤니티와 경찰간에 벽을 형성케하는 문제도 만들었다. 찰스 페미노 서머빌 경찰서장은 주택 침입과 같은 중대한 범죄사건이 있어도 이민신분 때문에 말을 꺼리는 사람들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테이톤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향후 서머빌 경찰은 이민단속국 요원이 형사범죄 영장을 보유하고나 경찰이 이민범죄가 아닌 분명한 단속 요건이 있을 때만 이민단속국 요원의 구금 요청을 받아들일도록 했다. 단지 불법이민자만의 이유로 구금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서머빌 시의 행정명령에 앞서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시큐어 커뮤니티 법의 사실상 철폐를 위한 매사

추세츠 신뢰법안 (Massachusetts Trust Act)을 19일 상정했다. 향후 매사추세츠 내에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일 수 있다.

시큐어 커뮤니티 법안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이민단속국(ICE)은 지난 주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머빌 시 조셉 커테이톤 시장의 행정명령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한 매사추세츠 ACLU 변호사 로라 토틀로씨는 미공영방송라디오(NPR) 기고문을 통해 “매사추세츠 타운과 시는 이번 서머빌의 움직임을 따라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일부는 벌써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 오바마를 ‘니그로’ 욕한 뉴햄프셔 경찰서장 사퇴

미 전국적으로 비난, 미트 롬니도 전화해 사과요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햄프셔 주 울프보로의 선출직 경찰 서장이 오바마 대통령을 가리키며 인종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서 반발을 샀고 결국 19일 사퇴했다.

로버트 코플랜드 경찰서장(82)은 오는 2017년까지의 잔여임기를 앞두고 있지만 일반 시민이 듣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욕했다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됐다. 그의 발언을 들은 한 여인이 타운 관계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전국적인 화제로 번지게 됐다.

지난 3월 그는 한 식당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가리켜 N으로 시작되는 단어를 사용했다.

코플랜드 전 경찰서장은 4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결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그를 강력히 비난했다.

울프보로의 타운 매니저 오웬 씨에 따르면 코플랜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통해 관공촌인 이 타운을 방문하지 않겠다는 보이콧의사를 밝히면서 비상이 걸렸다. 롬니 전 주지사도 이 마을인근에 여름 별장을 보유하고 있다.

오웬 씨는 “사실 이번 발언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 상권이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었다” 며 “그의 사임으로 인해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고 안도했다.

시 관계자들은 비록 모두가 공분했지만 선출직인 코플랜드 시장을 사임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오바마 대통령을 니그로라 칭한 로버트 코플랜드 경찰서장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Sales Associate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Andover Colonial**

\$989,000  
4 Beds, 2.5 Baths  
3,942 sq. ft  
Andover, MA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MA주, 문 닫는 양로원 급격히 증가

## 수입 없는 노인들 메디케이드에 비용 의존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지원 금액 제자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5개월 사이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4개의 양로원(nursing home)이 문을 닫았다. 양로원 운영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10여년 동안 메디케이드 지원 금액이 거의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로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곳에 머물고 있던 수백명의 노인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최근 들어 매사추세츠 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10년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 문을 닫은 양로원은 50개가 넘는다.

양로원 운영자들에 따르면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대부분의 비용을 메디케이드로 충당한다. 그러나 양로원에 머무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데 비해 메디케이드 보조 금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메디케이드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 정부 관계자들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한다. 주 정부에서는 양로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노인들이 노년을 보내기 위



메디케이드에서 지원 받는 금액으로는 양로원에서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양로원이 늘고 있다

한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양로원 이용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원 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근 아메리칸 헬스케어 연합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전체적으로 양로원 이용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 금액은 80억 달러가 부족하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로 충당되지 않아 부족한 금액이 약 3억 5천만 달러로, 양로원 이용자 1명당 매

일 37달러가 부족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그레이터 보스톤 지역에서 5개의 양로원을 운영하고 있는 베인케어의 리차드 베인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양로원)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함께 재원을 마련한다. 많은 노인들이 자산을 소진한 후에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몇만 달러씩 필요한 양로원 비용을 메디케이드를 통

# MA주 병원 전체적으로 수익성 상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병원들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64개의 병원 중 11곳은 적자를 기록하였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병원들의 수익률(총이익 - 비용, 백분율로 환산)은 4.1%였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3.8%에 비해 소폭 상승된 수치다.

일반 병원이 아닌 대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6개 병원의 수익률도 3.6%에서 4.6%로 증가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와 같이 정부 보조 의료보험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23개 커뮤니티 병원의 수익률은 5.6%에서 3.6%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조사를 진행한 의료 정보 및 분석 연구소의 아론 보로스 소장은 "병원 입장에서 지난 한 해는 분명 좋은 1년이었지만, 병원 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적자를 기록한 병원들을 살펴보면 작년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수익이 좋은 병원은 보스톤 어린이 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으로 작년에 1억 5천 7백만 달러를 벌였으며, 매사추세츠 종합 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이 1억 4천 9백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손해가 가장 큰 병원은 세일럼에 위치한 노스쇼어 병원(North Shore Medical Center)이었다.

jsi@bostonkorea.com

해 납부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양로원 업계에서는 주 정부로부터 받는 메디케이드 지원 금액을 17억 달러로 인상 시키기 위해 로비를 진행 중이다. 하원에서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양로원 비용 지원을 위해 2천 7백만 달러를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했지만, 상원 예산안에는 인상분이 없다. 드블 패트릭 주지사는 오히려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양로원 지원 비용을 2천 1백만 달러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안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 나른한 봄, 감기·피로엔 홍삼이면 "꿀"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 홍삼으로 지켜주세요!



가정愛 달  
사랑이벤트

행사기간: 5월 26일 까지 연장!!

Event 1  
**10% OFF**  
모든 자녀제품



Event 2



날씨가 더울때 차갑게 드셔도 됩니다.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우유에 꿀과 함께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GIFT

▶ 매장으로 전화 주시면 타주 어디든지 포장 후 배송해드립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1~2일 안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781-238-0303

# 대장균 감염 의심되는 그라운드비프 리콜

## 매사추세츠주 1명 포함 4개주에서 11명 감염 보고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4개 주에 공급되는 같은 쇠고기(ground beef)가 위험한 대장균(E.coli)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되었다고 미 농무부가 지난 19일 발표했다.

관계자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4개 주로부터 총 11명의 같은 쇠고기와 관련된 박테리아 감염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1명의 감염 보고가 있었다. 11명 중 6명은 입원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주 보건부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매사추세츠 주민은 햄프셔 카운티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감염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이번에 리콜된 같은 쇠고기 제품은 울버린 패킹사(Wolverine Packing Co.)에서 3월 31과 4월 18일 사이에 제조된 것으로, 식당에 납품하기 위해 배급업자에게 배송됐다.

"어떤 울버린 패킹 제품도 이번 발생과 연관성있는 병원균에 양성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던 터라, 회사는 병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자발적인 리콜을 하는 것에 신중했다."고 울버린 패킹사 대변인 척 샌저는 말했다.

이번 질병에 연관된 소비자의 연령은 19살부터 46살까지이고 이들은 미시건, 미주리, 오하이오 등 4개 주의 식당에서 덜 익힌 햄버거를 먹었다고 울버린 패킹사는 전했다. 관련된 모든 같은 쇠고기는 신선했었고 슈퍼마켓용 라벨은 붙어있지 않았다.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4개 주에 공급되는 같은 쇠고기가 치명적인 대장균(E.coli)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제기돼 리콜됐다.

리콜된 제품 중 가장 최근 것은 4월 18일 울버린사의 미시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24일간의 유효기간이 이미 일주일 전에 만료됐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리콜된 제품에는 공장번호 "EST. 2574B"가 표시되어 있고, 제조날짜 형식(월 일 14)에 따라 "03 31 14"와 "14 18 14" 사이의 날짜로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이다.

식품안전과 검사서비스(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 따르면 이번 제품들은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대장균 0157:H7은 치명적일 수 있

는 박테리아로, 노출된지 2일에서 8일간 탈수증, 혈성 설사, 경련성 복통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주일 안에 치유가 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이라고 부르는 신부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5세 미만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반점이나 창백한 피부 그리고 소변 감소 등과 같은 특정한 증상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즉시 응급치료를 받을 것을 농무부는 권장한다.

hsogh@bostonkorea.com

# RMV 수수료 7월 인상 등록·검사·도로주행 테스트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매사추세츠주 교통당국(MassDOT) RMV부서는 지난 13일 RMV 등록, 검사 및 도로주행 테스트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은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3월 MassDOT의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계획안에 의하면 비상업용 원동기 차량 등록 수수료는 50불에서 60불로 인상된다. 상업용 등록 수수료에는 변화가 없다.

연간 원동기 차량 검사 수수료는 최소 29불에서 최대 35불까지 인상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한번만 지불하면 되는 도로주행 테스트 수수료는 최소 20불에서 최대 35불까지 인상된다. 도로주행 테스트 수수료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초보 운전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원된다.

MassDOT RMV부서는 이제 가지 요금 변동 사항에 대하여 몇 번의 회의를 가진 끝에 이 안이 2015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5,500만달러의 예산격차를 줄이고, 주의 교통 시스템에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등록 수수료는 2009년도에, 검

사 수수료는 1999년도에 바뀌었으며 도로주행 테스트 수수료가 바뀐 지는 10년 이상 되었다.

MassDOT는 매사추세츠주의 다양한 교통 기관들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 현재 MassDOT는 고속도로부, MBTA와 철도교통부, 항공부, RMV부로 구성되어 있다. MassDOT는 주 내에서 이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믿을만한 교통시스템을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MassDOT의 혁신적인 방법으로는 액셀레이티드 브릿지 프로그램(Accelerated Bridge Program), "where's My Bus and Train?" 어플리케이션, "Fast 14" 등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다음의 MassDOT 주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www.mass.gov/massdot](http://www.mass.gov/massdot) blog: <http://blog.mass.gov/transportation/>, or follow MassDOT on twitter at <https://twitter.com/MassDOT> and Facebook at [www.facebook.com/massdotinfo](http://www.facebook.com/massdotinfo).

hsogh@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89-4989

집을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집을 구입하실 적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세가 없고, 월세비가 한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거주 뿐 아니라 투자용으로도 좋습니다. 집을 구매해서 받은 렌트비로 용자금을 상환하고, 세금을 내고, 유지가 가능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자 올해 부동산 경기가 점점 회복이 됨에 따라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집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음) 특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3년 이상 보스턴에 거주 분들의 집 구입을 권유합니다. 보스턴 지역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 보다 높고 훨씬 안정적이어서 한국 분들의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부동산 관련 세법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에 임대 목적으로 투자나 거주를 하면 투자 대상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스턴의 주요지역의 보편적인 크기로 방2 +화2 1500 SF의 렌트비는 최소 \$ 2,400 이상을 요구합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 \$400,000 달러

다운페이 \$100,000 달러

용자금액 \$300,000 달러

용자 이율 4.5%, HOA(콘도 관리비) 매달 \$300, Home Insurance : 800/Yr

세금등을 합하여 계산하면, 한달 페이먼트가 약 \$2287불 나옵니다. (미국에 직장이 없거나 크레딧이 없으면 50% 정도 다운페이셔 모기지나 모기지나. 그러나 돈을 많이 다운한 만큼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100,000불의 다운 페이로 40만불 정도의 콘도나 타운홈을 구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투자용 부동산 구입을 제외하고도, 매달 렌트로 페이먼트를 내야하고,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무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먼저 매달 나가는 렌트비를 용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허공으로 날아가는 비용을 저축할 수 있고 재산세 및 용자금 원금을 제외한 이자 비용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여유로운 투자자 뿐만 아니라, 무주택 소유자나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를 통해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 또한 많은 고민이나 부담없이 부동산 구입을 해야할 적기입니다.

물론 집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렌트비로 나가는 돈 보다는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모기지율도 현재는 연초 보다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모기지율이 최고 약 5.5% 오히려 예상 합니다만 1980년대 최고 18.5% 까지 올랐을 때도 집 거래는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은 모기지율이 상승하는 것보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전망이 우세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뉴스타 부동산의 GINA CHOI 에게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주 법 칼럼

## 이민 비자 관련 Updates

### 1. H-4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계획의 일환으로 H-1B 비자 배우자 (H-4) 에 대한 노동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현재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등 긍정적으로 실제 법안으로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H 소지자의 배우자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서인 I-140 이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근거로 한 H 연장을 한 케이스에 한해서 배우자의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취업 3순위와 5순위 우선날짜 후퇴

최근 예상치 못한 엄청난 수의 취업 영주권 3순위에 대한 영주권 신청서로 인해 취업 영주권 3순위의 우선날짜가 일년이상 후퇴했습니다. 오는 6월 1일 부터 한국국적자가 해당되는 일반 3순위 우선날짜는 2012년 10월에서 2011년 4월로 후퇴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해당하는 우선날짜는 이번달 2012년 10월에서 2006년 10월로 무려 6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이는 매년 활동된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쿼타가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쿼타가 시작하는 10월까지 계속 우선날짜가 후퇴하거나 소폭 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행 24년만에 처음으로 투자이민에서도 우선순위 날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만개 배정된 투자이민은 지난 24년 동안 단 한 번도 한해에 만개 이상의 투자이민 영주권이 발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투자이민의 80% 이상이 중국인 신청자들이

있고 최근 중국에 일어난 투자이민 붐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 3.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N-400

5월5일 이후 부터 신청되는 모든 시민권 신청서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로만 신청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신청서는 9페이지였지만 새로운 신청서는 21페이지로 대폭 개정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새로운 I-94

작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I-94 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종이로 된 I-94 대신 온라인으로 I-94 를 발급하는 새로운 제도는 그동안 의도와 다르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외에 입국일과 장소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발급이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토안전부는 5가지의 정보 (이름 (Last name & first name),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발급국가) 만 입력하면 I-94 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미국 입국 기록도 쉽게 받을 수 있게돼 이러한 기록이 필요하신 분들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에게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www.lookjs.com

## 美 "모든 항공사 운임·서비스 비용 공개·비교" 방침

수화물·사전예약 비용 등 공개... 여행예약사이트도 공개 대상 포함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미국은 항공사와 여행사의 운임과 서비스 비용을 일반에 공개해 소비자가 비교·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아는 것이 힘"이라며 "항공사와 여행사의 운임과 서비스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여행사가 공개해야 할 대상에는 기존 항공료 외에 무료로 반입이 허용되는 수화물 여부, 수화물 2개까지의 선적 비용, 기내 반입 수화물 허용 여부 및 선적 비용, 좌석 예약 비용 등이 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항공·여행사 외에도 여행 정보·예약 사이트도 소비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소개할 때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 교통부가 운임·서비스 비용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항공사들이 종전에는 없었던 비용 부담 체계를 만들어 적잖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예전에는 수화물 운임이 항공료에 포

함돼있었으나 최근에는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수화물 운임을 별도로 받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위치타주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딘 헤들리 조교수는 "최근 들어 항공사들이 별도로 부과하는 서비스 운임이 항공사 전체 매출의 18%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사우스웨스트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들이 승객 수화물에 대해 별도의 운임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항공사는 기내 반입이 허용된 수화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금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행 정보·예약 사이트는 물론 항공사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도 별도 요금 부과 방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미국 교통부는 "항공사 등의 사이트를 면밀히 뒤져본다 해도 수화물에 요금이 부과되는지 등을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앞으로 90일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gija007@yna.co.kr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학과 수석비서  
위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산성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 은혜 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공화당 선거전략가 칼 로브(좌측)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우측)

# 공화, 힐러리 건강·나이 문제 집중 공격 미 정치권의 본격적인 대선 공방전 시작 의미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201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가 유력해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나이와 건강 문제가 정적들에 의해 노골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미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레인스 프리버스 위원장은 지난 18일 NBC방송의 '밋더 프레스'에 출연해 "클린턴 전 장관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나이(67세)와 건강 문제는 정당한 선거 이슈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프리버스 위원장은 공화당 선거전략가 칼 로브의 최근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건강과 나이 지적은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에도

공정한 게임이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1년 69세에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매케인 상원의원도 2008년 72세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

앞서 로브는 지난 13일 공개 좌담회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 2012년 뇌진탕 증세로 장기 입원한 것에 대해 '뇌 손상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클린턴 장관은 12월 의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뇌진탕 증세로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한달여 동안 병원에 입원한 뒤 업무에 복귀해 이듬해 1월에야 청문회에 출석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공식 병명은 혈전증이었다.

로브는 "30일이나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났을 때에는 심한 뇌 손상을 겪는 사람들이나 착용하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며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닉 메릴 언론담당 비서는 곧바로 "100% 건강하다"면서 "그들이 과거 클린턴 장관의 성과와 앞으로 이뤄낼 일을 두려워한다는 반증"이라고 맞받아쳤다.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거들고 나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로브의 발언 다음날인 지난 14일 피터슨 재단 행사에 참석해 "아내는 나보다 훨씬 빠르고 겉으로 보기에 나보다 좋아 보인다"며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지난 18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로브의 '힐러리 뇌 손상' 발언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로브는 '힐러리 뇌 손상'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섰다.

그는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문제삼는 것은 단지 (힐러리의) 건강문제가 아니다. 그가 출마했을 경우에 생길 진짜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힐러리가 2016년 선거에 나설 때 나이가 벌써 69세다. 그리고 당선돼 재선까지 한다고 하면 그녀는 77세가 된다"고 나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결국 대선을 2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악점 건드리기'는 미 정치권의 본격적인 대선 공방전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출마를 놓고 공화당의 공격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hsqh@bostonkorea.com

## 40명 사망 '보훈병원스캔들' 오바마 엄단 지시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보훈병원(Veteran Hospital)에서 퇴역군인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를 냈다는 의혹이 확대되자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최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보훈병원에서 퇴역군인 수십명이 입원 대기 기간이 길어져 사망했다는 의혹이 병원 내부 고발자에 의해 제기됐다. 병원 측은 의료서비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진료대기환자들이 밀려 있지만 대기 기간이 짧은 것처럼 명단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고발자는 "병원 측이 예약 환자들을 비밀 대기자 명단에 수개월씩 올려두었다가 보고용 대기 시간에 맞춰 공식 명단으로 옮긴다"면서 "최대 40명이 입원 대기 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피닉스 병원만이 아니라 와이오밍, 콜로라도,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 등 보훈병원도 유사한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훈 병원 스캔들'은 미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됐다.

미국의 150여 개 보훈병원은 치료 요청 후 2주 내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다.

회원 240만명의 미 재향군인회는 에릭 신세키 보훈부 장관의 사임을, 공화당은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 통수권자가 아닌 한 미국인으로서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용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버트 팻젤 보훈부 차관은 사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립네이버스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피닉스를 방문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hsqh@bostonkorea.com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모기지를 위해**

PNC Mortgage | 성취하는 당신을 위해

더 좋은 조건과 고정금리 모기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출 전문가들, 미국, 경제이동부터 대출 목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별히 안내드리기. PNC 모기지와 함께하세요. 믿어 의심치 않는 대출과 대출기간, 대출 목적, 대출금 상환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은 물론 또한 가능합니다. PNC 모기지 대출 담당자에게 상담해 적합한 대출 솔루션을 알아보세요.

**Kimberly Moon**  
Mortgage Loan Officer  
NMLS# 838021

857-204-0174  
One Wall Street  
Burlington, MA 01803  
kimberly.moon@pncmortgage.com

# '슈퍼 화요일' 경선, '티파티' 지지 후보 참패

(보스톤=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슈퍼 화요일'로 불린 지난 20일 공화당 중간선거 후보 경선에서 '티파티'(Tea Party)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대부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파티 부활 가능성을 우려한 공화당 지도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화당 내 주류 세력의 상징적인

물인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 의원은 캔터키주 경선에서 티파티가 지지한 매트 베빈 후보를 60% 대 35%의 격차로 꺾고 승리했다. 오리건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조지아주, 그리고 아이다호주 등지의 상원과 하원 후보 경선에서 티파티가 선호하는 후보들은 큰 표 차이로 패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풀뿌리 보수주의 유권자 운동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티파티는 지난해 연방정부 섣달까지 불사하는 극단적 성향을 보이면서 결국 민심을 등 돌리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티파티의 영향력 감소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미국 CBS방송이



이날 발표한 미국인의 티파티 지지율은 2010년 중간선거 직후의 31%에서 올해 15%로 반토막 났다. 공화당원들

의 티파티 지지율도 2010년 7월 55%에서 32%로 떨어졌다. 공화당 전략가인 레베카 불하우스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티파티의 시대는 끝났다면 이번 경선 결과는 티파티가 공화당 경선을 장악하는 현상을 공화당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hsqh@bostonkorea.com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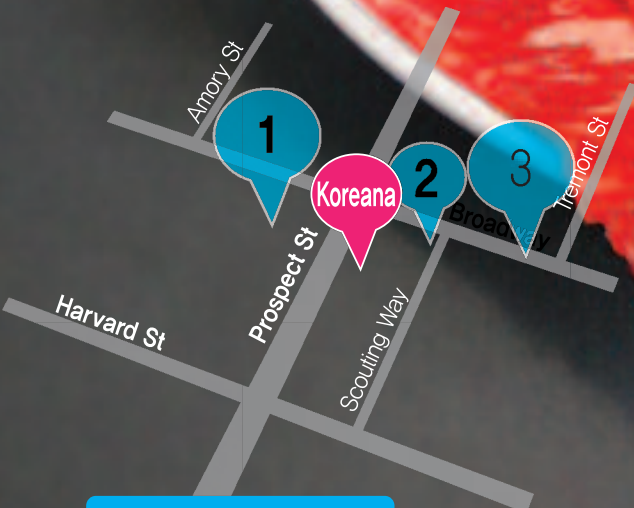
##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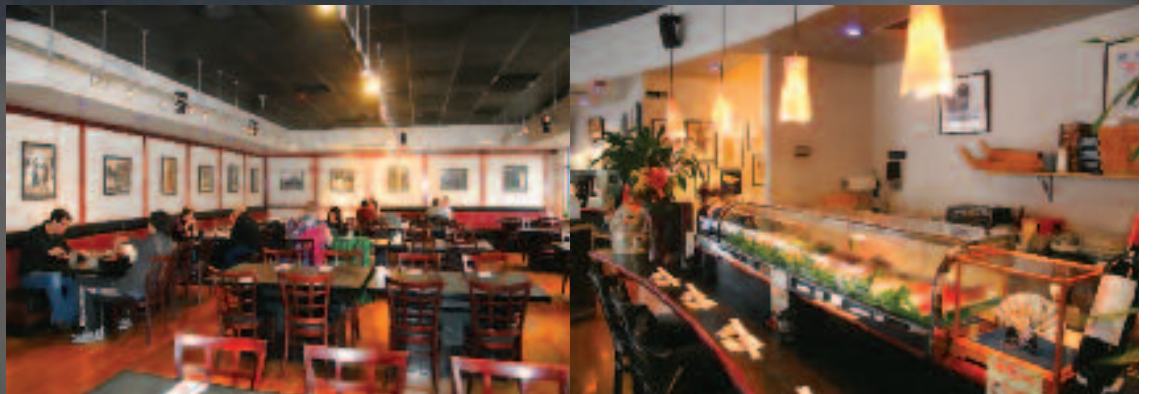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4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 비즈니스 시작하기

## S corporation? 아니면 LLC?

영주권자인 BK Chang은 보스턴에서 개인 사업(sole proprietorship)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등 사업관련비용을 빼면 개인 사업에서 연 \$100,000정도 이익이 납니다. 이번에 S corporation이나 LLC를 이용해 사업을 하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재산을 사업과 관련된 책임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S corporation을 설립할지 LLC를 설립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S corporation과 LLC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위의 BK Chang의 사례를 통해 S corporation이 유리한지, LLC가 유리한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 LLC가 S corporation에 비해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해

법인(corporation)이나 LLC는 요건을 갖춰 주(state)정부에 설립신고를 해야하고, 설립이후에도 각종 서류나 양식을 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LLC가 corporation에 비해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이후에도 내부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나 양식들이 적어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 LLC는 지분율과 다르게 이익배분 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S corporation은 법인의 이익을 반드시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LLC는 소유주(member)들의 합의에 의해 지분율과 다르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special allocation). 다만, 세법상으로는 LLC의 이익을 지분율과 다르게 배

분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substantial economic effect). 그렇지 않으면 지분율대로 배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 member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이익을 주주(member)들에게 그들의 지분율과 다르게 배부하고자 한다면 LLC를 선택해야 합니다.

### 그러나 LLC는 영속적이지 못하고 지분양도에도 제약이 있어

S corporation은 주주와 별개의 조직체이므로 주주 개개인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영구적인 존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LLC는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LC의 경우 member가 사망하거나 탈퇴하는 등 LLC의 청산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S corporation의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수도 할 수 있는데 반해, LLC의 member가 지분을 양수도하고자 할 때는 다른member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member)의 개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영속성있는 사업을 하고자한다면, 회사의 지분이 자유롭게 양수도 되기를 원하면 S Corporation을 설립해야 합니다.

### 또한 LLC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해야 해

세무적인 측면에서 S corporation과 LLC의 차이점을 살펴봅시다.

먼저,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를 보면 S corporation이나 LLC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 corporation이나

LLC(C corporation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세는 S corporation이나 LLC에는 과세하지 않고 주주(member)에게 직접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S corporation과 LLC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LLC의 경우 소유주(member)에게 이전된 소득 전액에 대해 자영업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S corporation의 경우는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과세되고, 주주가 급여이외에 회사로부터 이전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와 의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BK Chang의 사례를 봅시다.

만약, BK Chang이 1인 주주인 S corporation을 설립해 \$100,000의 소득 중 \$60,000을 급여처리하고 나머지 \$40,000소득은 직접 이전받는다면, BK Chang은 \$60,000에 대해서만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BK Chang이 1인 소유주 LLC(Single member LLC)를 만들어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세금 신고한다면, BK Chang은 LLC의 소득 \$100,000전액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 합니다.

### S corporation의 직원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해야

위의 설명을 듣고 난 BK Chang은 순간 좋은 절세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S corporation을 설립한 후 급여는 받지 않고 S cor-

poration의 소득 \$100,000전액을 이전받는다면...? 그렇다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안 내니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IRS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BK Chang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S corporation은 직원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BK Chang과 같이 주주가 S corporation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는 받지 않고 S corporation의 소득 전액을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받는다면 IRS는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일정 금액을 급여로 간주하여 그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과세합니다.

### 반드시 S corporation을 설립해야 하나?

위의 BK Chang의 경우 위에서 본 법률적 장단점을 논외로 하고 세금측면에서만 본다면, S corporation이 LLC보다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BK Chang은 반드시 주(state)정부에 법인(corporation)을 설립한 후 IRS에 S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LLC는 세금신고 방법으로 C corporation, S corporation, 파트너십 중 LLC 스스로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BK Chang의 경우 LLC를 설립한 후 LLC의 세금신고 방법으로 S corporation을 선택하면, 법률적으로는 LLC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세무측면에서는 S corporation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LLC는 반드시 S corporation 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 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 E 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MAY 23, 2014 - MAY 29,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Memorial Day MEAT FEAST BBQ SALE

ENJOY A HEARTY, HEALTHY, HAPPY BBQ WITH YOUR FAMILY & FRIENDS THIS MEMORIAL DAY WEEKEND. PREPARE ALL YOUR FAVORITE MARINATED MEATS AND MORE THIS WEEKEND AT HMART.  
 메모리얼데이 바베큐도 역시 H마트와 함께 준비하세요!

**Organic 100% DELICIOUS**  
 H마트 유기농 제품으로 더 건강하세요.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Haiga Mai Rice 15 lbs. 유기농장 유기농 안심배아미 **\$34.99**  
**STONYFIELD** Organic Milk 스톤필드 유기농 우유 **\$3.49**  
 All Varieties/64fl.oz.

**Haru Haru RICE SPECIALS**  
 Enjoy our U.S. NO 1 EXTRA FANCY 100% CALIFORNIA GROWN MED. GRAIN MILLED RICE available only at Hmart. Quality you can trust!  
**하루하루 마이쌀**  
 유전자 조작을 하지않아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프리미엄 하루하루 마이쌀을 H마트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15 lbs. **\$14.99**

**WITH SMART SAVINGS CARD** 오투기 진라면 **OTTOGI JIN RAMYUN** Hot/Mild - 4.23oz. x 20ea./box **\$11.99**

**FRESH** 바베큐용 돼지갈비 **PORK SPARE RIBS FOR BBQ** **\$2.49** lb.

**FROZEN** 삼겹양지 슬라이스 **SLICED BEEF SHORT PLATE** **\$6.99** lb.

**FROZEN**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4.99** lb.

**OHSUNG NEW**  
**새우 팍** SHRIMP POP  
**CRISPY SHRIMP CRACKER**  
 Reward your tastebuds! with the Delicious Shrimp Pop 입안 가득 퍼지는 새우의 참맛, 새우팍!  
 5/23 - 6/5  
 5.29oz. **\$1.99**  
 14.10oz. **\$3.99**

<b>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b>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성인용 에비에 좋은 Fuji Apple 후지사과 <b>\$1.48</b> lb.	<b>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b>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분 섭취에 효과적인 Champagne Mango 샴페인 망고 box <b>\$9.99</b>	<b>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b>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위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b>\$1.48</b> lb.	<b>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b>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칼륨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향과, 해독작용이 풍부한 Scallion 파 <b>3\$1</b> bun./for	<b>금토 일만 세일 가격 적용</b>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인체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보강해주는 부항용이 있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 Garlic 마늘 5pcs/pkg. <b>2\$1</b> pkg./for
<b>FRESH</b>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은 Chicken Drumstick 닭다리 <b>\$0.99</b> lb.	<b>LIVE</b> 단백질,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몸보신 용결재 Live Lobster 살아있는 랍스터 <b>\$7.99</b> lb.	<b>FROZEN</b> 두루룬 생선의 대표주자 Mackerel Pike 쫄치 50-60's <b>\$1.99</b> lb.	<b>FROZEN</b>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Illex Squid 오징어 700up <b>\$1.99</b> lb.	<b>FROZEN</b> TONGTONGBAY Frozen Small Octopus Sliced 통통배 절단박지 1.5 lbs./pkg. <b>\$7.99</b>
HAIOREUM/NATURE'S Red Bean 해오름/자연담은 붉은팥 4 lbs. <b>\$6.49</b>	HAIOREUM Cooked White Rice 해오름 순밥 7.4oz. x 6ea./pkg. <b>\$6.99</b>	HAIOREUM Spicy Chewing Noodle 해오름 비빔 쫄면 17.6oz. <b>\$3.99</b>	HAIOREUM Beef Bulgogi, Kalbi Sauce 해오름 소불고기/갈비 양념 2.11 lbs. <b>\$3.99</b>	HANARO Square Multi Roaster 하나로 사각 고기구이판 ea. <b>\$15.99</b>
BEKSUL Dashida Beef Flavor Soup Stock 백설 쇠고기 다시다 2.2 lbs. <b>\$9.49</b>	BADAAECHAN Dried Seaweed 바다애찬 마른 미역 5.29oz. <b>\$3.99</b>	HAITAI Pollapo Grape Ice Tubes 해태 포도맛 폴라포 4.73fl.oz. x 6ea./pkg. <b>\$3.99</b>	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 rolls/pkg. <b>\$13.99</b>	시원하고 편안한~ 망사 쿠션 등받이 Back Supporting Mesh Cushion ea. <b>\$2.49</b>

튼튼하고 휴대도 간편한 고급 체크 단우산 High Quality Plaid Umbrella ea. **\$3.99**

PANASONIC Super Grinder 파나소닉 고기분쇄기 MK-G20NR/ea. **\$124.99**

**WE'RE NEVER CLOSED**  
 Store hours vary between locations. Please call the one nearest you for exact times.  
**H마트는 1년 365일 항상 오픈합니다.**

**BURLINGTON H M A R 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I-93 NORTH:** Exit 37B (into I-95 S/MA-128 S) toward Waltham, Exit 32B-32A toward Burlington,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Arlington,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I-3 SOUTH:** Exit 25A (into I-95 S/MA-128 S) and follow signs for Middlesex Turnpike (South), turn left (at the light) and turn left when you see the Hmart sign (near Market Basket).

**AND THAT'S WHAT YOU GET WITH THE BUYING POWER OF 45 STORES.**  
 H마트는 최고의 신선함과 뛰어난 품질,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전역 45개 매장을 통합관리하는 구매력으로 온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식품을 공급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offer the freshest products. If that means we have to get our fish from the Fulton Fish Market, we do it. If it means we have to negotiate directly with farmers, it's done. If it means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and bend over backwards for the best price, it's not a problem. So when the time comes to make that "magical" meal... Hmart think your ingredients had better be, better than the best.

Find us on: **facebook**  
 H마트 페이스북에 놀러오세요!  
[www.facebook.com/hmartofficial](http://www.facebook.com/hmartofficial)  
 Scan our QR-code with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백성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 '집 잃었던 사람들' 주택 재구입는다

지난해부터 '부메랑 바이어'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부메랑 바이어는 차압이나 숯세일로 집을 잃은 뒤 주택 재구입에 나서는 바이어들이다. 주택 재구입에 대한 의욕이 강한 부메랑 바이어들은 이르면 2년 내에 주택 재구입에 성공하는 편이다. 차압이나 숯세일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들은 대부분 크레딧 점수 기준 등이 악화돼 대출기준이 비교적 낮은 FHA 용자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FHA 용자는 부메랑 바이어들에게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용자를 발급하지 않아 집을 다시 사려면 적어도 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했다. 지난해 소개된 FHA의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조건이 맞을 경우 차압, 숯세일 후 1년만 지나면 집을 다시 구입할 수 있도록 용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차압으로 집을 잃은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 구입 재기를 돕는 FHA '백투워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차압 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기존의 FHA 용자는 차압이나 숯세일로 집을 처분한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재구입하려고 할 때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FHA 대출기준을 갖춰더라도 3년 이상을 반드시 기다려야 FHA 용자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메랑 바이어가 급증한 지난해 FHA가 유예기간 기준을 크게 완화한 새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지난해 소개된 '백투워크' (Back to Work) 프

로그램은 숯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잃어도 1년만 지나면 다시 FHA 용자를 통한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백투워크 프로그램의 종료기간은 현재 2016년 9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1~2년 사이 차압이나 숯세일로 집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백투워크 프로그램 자격을 준비하면 단기간 내에 다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FHA는 차압 또는 숯세일을 선택해야 했던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 구입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백투워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신청조건은 비교적 까다롭다는 평가다.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차압 입증

FHA의 백투워크 프로그램을 통한 주택용자 대상은 우선 숯세일, 차압은 물론 '자발적 차압' (deed in lieu) 개인파산의 경우도 해당된다. 자발적 차압은 모기지 연체 발생 때 피해가 큰 차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은행 측에 자진 양도하는 것이다. 차압으로 기록이 남지 않고 크레딧 회복도 빠른 편이고 은행 측도 차압 절차 관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이 4가지 경우를 통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백투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1년만에 FHA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 처분 사유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피치 못한 결과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주택 처분 사유가 통제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이었음이 입증되어야 백투워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가구 소득이 일시에 급감했다는 등의 이유가 명백해야 한다. 만약 용자 조건이나 모기지 '리캐스팅' (recasting) 실시 기록

이 있을 경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경우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주택 처분도 백투워크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

### ■6개월 소득 20% 이상 감소 증명

백투워크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경제적 어려움이 주택 처분의 이유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갑작스런 가구 소득 감소로 차압, 숯세일 등이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백투워크 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적어도 6개월 이상 20% 이상 감소해 차압이나 숯세일이 발생했으면 백투워크 프로그램 신청자격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주택 보유자의 소득이 연간 약 10만달러였으나 배우자 중 한 명의 사망이나 갑작스런 실직으로 소득이 8만달러 미만으로 감소했고 적어도 6개월 간 소득이 8만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지 못해 차압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직 증명서다. 대개 FHA 용자를 발급하는 은행이 대출 신청자의 직장에 재직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재직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소득 감소 시점과 감소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금보고서, W-2 양식, 월급 명세서 등 기타 소득 관련 서류로도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잘 챙겨둬야 한다.

### ■재정여건 회복 노력 있어야

소득 감소로 인한 주택 차압 등이 증명됐더라도 집을 다시 구입하려는 대출자의 재정상태가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차압이나 숯세일로 집을 잃은 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다시 회복했음을 백투워크 프로그램 참여 은행 측에 증명해야 한다.

또 이 기간에 기타 연체 없이 모든 대출을 제기

간 내에 상환하는 것도 중요하다. 백투워크 신청 전 적어도 12개월 크레딧 회복 노력을 통해 최저 640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를 회복해야 한다. 또 '주택도시개발국' (HUD)이 승인하는 주택 및 용자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일정 절차의 카운슬링을 받아야 백투워크를 신청할 수 있다.

### ■증빙서류 준비가 관건

FHA 백투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차압 후 1년 내에 다시 주택을 구입하려면 무엇보다도 각종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 감소로 인한 주택 차압이었던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 감소 입증 서류, 크레딧 리포트, 카운슬링 관련서류 등만 철저히 준비하면 백투워크 프로그램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

FHA가 요구하는 서류가 없다고 해서 단순히 사유서 등을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백투워크 프로그램 승인을 받기 힘들다.

### ■차압 후 기타 용자 신청기간

주택 차압, 숯세일, 파산, 자발적 차압 등이 3년 전에 발생했다면 소득 20% 감소 등의 규정에 상관 없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FHA 용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FHA 용자가 아닌 기타 용자를 신청하려면 기준이 조금씩 달라진다.

컨벤셔널 용자를 신청할 경우 주택 차압 후 7년을 기다려야 하며 2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준비해야 모기지 보험 규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주택 차압과 관련 사유를 은행 측에 문서로 증명하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차압 후 3년부터 컨벤셔널 용자를 신청할 수 있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결혼식비디오예약중 Nabis Studio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CJ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있을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은혜 . 세상 . 사람 .**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속에서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디딤돌교회 창립예배로 초대합니다. ”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디딤돌 교회**  
Stepstone Church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주일예배 낮 12시      52 Russell st Cambridge MA 02140  
담임목사: 최 용 하              781-572-5257              yongha.choi@gmail.com

## 작품 공모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제 2회 협회전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작가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한미예술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에서 2014년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사추세츠 주 렉싱턴 소재 렉싱턴 아트그레이트센터에서  
제2회 공모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응모작은 보스톤 미술관 (MFA, Museum of Fine Arts  
Boston)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 미술부장인 제인 포탈이 심사합니다.  
출품을 원하시는 분은 7월 20일까지 [www.kcsBoston.org](http://www.kcsBoston.org)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20과 함께 응모해주시시오.

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32) 어뉴어티 산수 계산

은퇴한 사람에게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이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비의 커다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로 저축이나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때 이자를 5~6% 보장한다는 금융상품을 접하게 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어뉴어티(annuity)입니다.

어뉴어티를 파는 사람은 높은 이자, 원금보장, 수입보장, 등 여러 가지를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고 투자 폭락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매우 유혹적인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뉴어티 투자에 위험성이나 부과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무엇을 보장한다는 계약서(contract or prospectus)를 읽고 나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합니다. 법적인 효력은 명시된 계약서에 있지 듣기 좋

은 말은 보장할 수 없는 말일뿐입니다.

간단한 산수 계산을 해 봅시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은 4월 30일 자로 19.65%입니다. 이 숫자는 뱅가드 회사의 인덱스 펀드(VTSAX, Total Stock Market Index Fund)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되는 종목입니다. 5년 전에 50만 불을 투자했다면 현재 약 120만 불로 불어나는 커다란 숫자입니다. 투자한 돈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투자입니다.

5년 전 변동성(Variable) 어뉴어티나 인덱스(Index) 어뉴어티에 투자하여 투자금보다 얼마나 더 불어났는지 재정문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펀드 수익과 비교해서 훨씬 적은 액수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과되는 경비(expenses)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참고로 월스트리트(WSJ)에 나온 기사 하나를 인용합니다. 2014년 2월 14일 자에 "어뉴어티 계약파기(Surrendering an Annuity)"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520개 어뉴어티를 조사해 본 결과 매년 부과되는 경비는 3.4%였습니다.

어뉴어티를 판 보험회사는 손님들의 투자 돈을 서브 어카운트(Sub Account)로 뮤추얼 펀드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경비가 약 3.5%입니다. 뱅가드 인덱스 펀드의 비용은 0.05%입니다. 어뉴어티 투자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3.0%가 매년 더 부과됩니다. 이것은 어뉴어티를 만든 회사와 파는 사람만 이익이지 투자자는 투자 효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뉴어티는 '사는 상품이 아니라 파는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과 세일

즈하는 사람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특정한 물건을 파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인 어뉴어티를 팔 때 수수료(commission)를 받습니다. 50만 불 투자에 6% 수수료라고 하면 3만 불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어뉴어티를 열심히 팔려고 노력합니다.

어뉴어티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른 어뉴어티를 팔고자 합니다. 새로운 어뉴어티에 투자하면 보너스로 6~7% 이자를 더 준다고 합니다. 투자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보너스 이자를 받기 위해 커다란 목돈을 어뉴어티에 투자합니다. 이 말은 자동차에 있는 스테레오 시스템을 듣기 위해서 많은 목돈을 주고 자동차를 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므로 보너스 이자를 여러 방식으로 돌려받습

니다. 어뉴어티 계약을 파기하면 벌금(Surrender Charge)이 부과되는 이유가 그중 하나입니다.

어뉴어티에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나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투자종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크로우스 펀드(Closed Fund)라고 합니다. 이러한 펀드는 누가 펀드를 운용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운용되는지, 수익률은 어떠한지, 경비가 얼마인지 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잠시 접어두고 투자 경비만을 비교할 때 뱅가드 회사의 인덱스 펀드는 0.05%입니다. 변동성 혹은 인덱스 어뉴어티는 3.5%입니다. 은행 이자가 거의 없는 요즘 투자 경비로만 3% 이상을 남에게 더 줍니다. 한 푼 한 푼 힘들게 번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러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http://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mailto: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http://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 앤젤라 엄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수석 컨설턴트이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졸업생으로서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와 M.I.T.에서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으로 오래 활동하였다.  
상세 정보 @ www.BostonAcademic.com, (617) 497-7700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 “2014년 정시지원 합격 현황: 프린스턴과 유펜”

전국의 입학사정관들에게 1, 2, 3월은 일년 중 가장 바쁜 달이다. 캠퍼스에서 입학사정관을 만나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자는 고등학생들이 이 시기에 대학을 방문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입학사정관들은 이 세 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지원서와 에세이, 그리고 추천서를 읽느라 사무실에 나오지도 않는다. 필자가 입학사정관으로 재직할 당시 보통 하루에 40-50통의 지원서를 검토하곤 했다. 따라서 47번째 지원서를 검토할 즈음에 필자가 얼마나 지쳐 있을지는 독자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만 내지 3만 명의 광대한 지원자 무리 가운데서 입학사정관들은 어떻게 소수의 합격자들을 찾아내고, 선발할 수 있을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수천명의 최우수 인재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지원자 자신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서를 통해 정말로 찾아 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입학사정과 관련된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입학사정관들이 원하는 것을 딱 꼬집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

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답이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들의 학교에 맞는 이상적인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들이 따르도록 훈련을 받는 어떤 철학이나 목표는 분명히 있다. 2월 말에서 3월이 되면 입학사정관들은 매일 밤낮, 심지어 주말이나 휴일에도 회의를 하면서 지원자 가운데 누구를 선발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 칼럼에서 올해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하버드, M.I.T., 스탠퍼드, 예일, 브라운, 그리고 컬럼비아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프린스턴과 펜실베이니아대학(Penn)의 현황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올해 입학사정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프린스턴: 올해는 프린스턴 역사상 입학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해였다. 7.28퍼센트라는 최저의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총 26,641명의 지원자 중에서 단지 1,939명만 합격했다. 더구나 1,141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대기자명단에 올라 있다. 작년의 경우, 대기자명단에서 33명의 학생이 합격했는데, Janet Rapelye 입학처장에 따르면 올해는 최소한

30명 정도가 합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 동안 프린스턴이 대기자명단에서 뽑은 학생수는 0~124명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프린스턴은 인종이 다양한 대학 가운데 하나인데, 합격생 49퍼센트가 자신들을 유색인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프린스턴은 입학사정을 할 때 학생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선발하는 정책("need-blind")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교육 경비 감당 여부는 최종 합격 결정과 상관 없다. 반면에,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브라운, 펜, 컬럼비아 등) 이런 정책을 오직 내국인 학생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학금을 신청하는 외국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한 처지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린스턴은 아주 뛰어난 외국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게 되는데, 합격생의 11퍼센트 이상이 68개 나라 출신들이다.

펜(Penn):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펜실베이니아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합격률이 1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서 올해 입학생은 가장 어려운 관문을 뚫고 들어온 학

년이 될 것이다. 간단히 줄여 "펜" (Penn)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대학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설립한 대학으로서 그 인기와 권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올해 35,868명의 지원자 중에서 오직 3,551명만이 합격했다(9.9%). 작년에 비해 지원자가 14.6퍼센트 증가했으며, 특별히 외국 학생들 사이에서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듯하다. 펜은 학부생을 위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매력이다. 예를 들어 와튼(Wharton) 경영대, 제롬 피셔(Jerome Fisher) 경영/기술 프로그램, 헌츠맨(Huntsman) 국제/경영 프로그램, 그리고 간호/건강관리경영 합동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대학 공대도 인기 있는 전공 중 하나이다. 프로그램에 따라 경쟁률과 지원 자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펜에 지원하기 전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아보고 확실한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다트머스과 코넬에 대해 살펴 보고, 올해 입학 경향에 대해 결론을 내려 봄으로써 내년 대입 경쟁 경향을 예측해 보려고 한다.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vantage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 JEI Math
- JEI English
- JEI Reading & Writing
- JEI Problem Solving Math
- JEI Korean / 재능한글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FREE Enrollment from June 1-30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 컷 25불 / 여자 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혁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타일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 하버드에서 원하는 성공적인 대입 에세이 쓰기

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급하게 쓴 글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초안부터 작성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한 글은 수준부터 차이가 난다. 필자가 진학 컨설팅 과정을 여러 방향부터 시작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글의 주제가 될 수 있을 법한 내용을 찾는 Brainstorming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좋지만, 어쨌든 시작이 반이다. 12학년으로 진학해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 과제, 시험에 치여서 잘 시간도 부족해질 것이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차근차근 아이디어를 쌓아두자.

2. Think strategically: 전략을 짜라. 비슷한 내신 성적과 시험 점수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에세이야말로 특별한 나를 제대로 광고할 수 있는 자리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력서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내가 선택한 수업들이 내 장점을 제대로 나타내는지 생각해 보자. 대략 한 장 정도의 공간, 최대 650자 안에서 학생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야기를 모두 풀어내야 한다.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물론, 원서 전체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는 확실한 대답을. 특히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유학생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실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 주제라면 단

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면 안 된다. 입학사정관들은 육하원칙에 따른 최대한 자세한 설명, 특히 이 특정한 경험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에 중점을 둔 미래 지향적인 답을 원한다. 다른 두 대학교 에세이의 주제가 비슷하다고 완전히 같은 에세이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도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확실한 대답을 적어야 한다.

4. Be careful with gimmicks: 빛 좋은 개살구. 십 년 전까지만 해도 효과적인 에세이를 위한 가장 좋은 조언은 'avoid clichés: 진부한 이야기를 피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젠 오히려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특이한 에세이가 많아져 버렸다. 실제로 에세이 대신에 시를 쓰거나 만화를 그리는 등 형식에서 벗어난 '에세이'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특별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보이는 걸모습만 화려하고 내용은 전혀 없는 에세이가 입학사정관들을 실망시키는 경우 또한 더 많아졌다. 서투러도 나만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알찬 이야기가 더 효과적이다.

5. Be yourself, be honest: 진실만을 진솔하게. 대입 에세이가 Personal statement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다. 내 이야기를 해야 한다. 부모님, 친구, 선생님, 심지어 집 앞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조언을 구해도 좋다. 하지

만 내 에세이고 내 취향대로 글이 쓰여져야 한다. 특별한 경험에 대해 조금은 과장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라도 깔끔하게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만 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딱딱한 원서 형식에서 벗어나 입학사정관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

6. Proofread, proofread, proofread: 다듬고, 다듬은 후, 또 다듬는다. "50 Successful Harvard Application Essay" 초판에서 소개된 '16 Steps to Success: 성공의 16 단계'를 보면 14번, 15번, 16번이 모두 Proofread였다.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지 말고 프린트해서 종이로 읽어보자. 워드프로세서의 맞춤법 검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친구에게도 읽어보라고 하고, 형제, 자매, 부모님께도 들려보자. 한 동안 에세이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말다가, 며칠 후에 다시 들여다 보자. 읽는 관점이 바뀌면 의외로 많은 실수가 눈에 띌 수 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을 충분히 들여 검토를 한 글은 수준이 다르다.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a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입학사정관들의 추천을 받은 성공적인 원서 에세이만을 모아 하버드 대학 신문인 The Harvard Crimson 편집부가 직접 분석하고 논평을 달아서 출판하는 책이 있다. "50 Successful Harvard Application Essay": 제목 그대로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들의 에세이 50개를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워낙 인기가 좋아 1999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 이미 3rd Edition이 발행되었고, 비슷한 이름의 다른 시리즈도 덩달아 인기몰이 중이다. 에세이의 실질적인 예제들이 좋기도 하지만, 권두의 소개글도 이 시리즈의 유명세에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바로 성공적인 대입 에세이를 쓰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 그 중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Start thinking about the essay early: 하루 빨리 시작해! 이른 시작의 중요성은 아무

##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십니까?

교육내용  
**Speaking**  
**Reading**  
**Writing**

3단계 레벨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

주당 1회  
3시간 교육

주당 \$20



ISAL 에서 시작하세요.  
[www.isalusa.com](http://www.isalusa.com)  
무료주차



INTERNATIONALSCHOOL OF ADVANCEDLEARNING  
addr: 20 Linden Street 2nd Floor Allston, MA 02118  
phone: 855-595-5885  
web: isalusa.com  
e-mail: info@isalusa.com

Leave after 18. We dare you.

INVITATION

## 선교골프대회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주최 선교골프대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대회일정 : 2014년 6월 1일 오후 1시

장 소 : Crystal Lake Golf Club  
940 North Broadway Haverhill MA 01832

참가접수 : 북부보스톤교회 장병준 장로 ( 978-979-7064 )  
이정수 집사 ( 781-654-7744 )

참가비용과 홀별 후원비는 접수시 안내하여 드립니다.

북부보스톤 한인연합 감리교회 남선교회원 일동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 다트머스 칼리지(Dartmouth College)와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

### 다트머스 칼리지(Dartmouth College)

다트머스는 아이비리그 대학중 올해 입학률이 코넬 대학교 다음으로 높았던 대학이다. 최근 신입생 입학 정원을 약 60명 정도 더 증원하기로 한 후 매년 소수의 신입생들을 더 뽑아왔다. 최근 몇년간 합격생들의 최종 등록률이 향상되고 있어 학교가 조기 지원자들 중에서 더 많은 합격자를 뽑고, 정규 지원자들의 합격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으로 바꾼 이후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이런 정책으로 신입생들의 SAT 평균점수와 고등학교 성적이 높아졌다.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입학허가된 학생들의 SAT 평균점수는 리딩이 722, 수학 726, 작문 730점으로 높아졌고, 고등학교 성적 상위 10%안에 포함된 학생들이 94%나 되었다.

많은 지원자들 중 우수한 성적과 다양한 리더십을 경험한 학생들이 증가한 이후, 최근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입학 정책 변화 중 하나는

다양한 학생 구성원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트머스 역시 올해 라틴계 8.4%, 최초 대학생 배출 가정 11%, 그리고 흑인과 공립학교 출신 학생들 입학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이런 정책 때문인지 올해 총 1,300여명의 학생들이 최종 등록을 했는데, 이는 학교가 예상한 학생수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여 대기자 명단으로 한명도 넘어가지 않은 해가 되었다. 매년 학교가 1220명 정도의 신입생들을 예상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약 80명 정도의 학생들이 더 등록하였다. 다트머스 54개 학과 중 생물학, 엔지니어링, 경제학이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었다.

다트머스는 코넬과 더불어 시골에 위치한 대학으로 학교 주변 공동체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학생들과 도전적이면서 모험심이 강한 학생들을 선호하는 학교이다. 올해 총 19,232명이 지원하여 2,220명이 입학허가되었고 이중 1,678명이 조기에 지원하여 467명, 정규 지원에 17,557명이 지원하여 1,751명이 입학 허가

되었다. 전체 지원자수는 지난해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였지만 조기지원 합격자수는 지난해 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

브라운 대학은 올해 학교 역사상 가장 낮은 합격율(8.6%)을 기록 하였고, 학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던 해였다. 조기 지원에 총 3,088명이 지원하여 583명이 합격하였고, 정시에는 27,203명이 지원하여 2,036명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2011학년도에 처음으로 공동원서를 도입하였을 당시 전체 지원자수가 30,946명으로 크게 상승 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2011년도보다 약 700명이 덜 지원했고 상황도 다르지만, 공동원서 거품이 지나간 해로 경쟁이 가장 심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브라운이 예상하는 최종 등록 학생수는 1,560명으로 현재까지 대기자 명단으로 넘어갔는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올해 입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PLME에 100명, 브라운과 RISD 프로그램에 16명, 아시아인 20%, 흑인 13%, 라틴계 13%, 어메리칸 인디언 2%, 하와이인 1% 등이 입학허가 되었다. 전체 입학생들중 18%가 가족중 처음 대학생을 배출 했고, 63%가 공립학교, 30%사립, 7%가 교회 학교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전공측면에서는 과학 전공 37%, 사회 과학 25%, 의료 과학 20, 인문학 13%, 그리고 전공 비결정이 5%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동일하게 전공 선택자들을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좀더 세부적으로 전공을 살펴보면 생물학, 컴퓨터 공학, 생화학, 분자 생물학등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전공으로 선택하여 지원한 학과들이다.

브라운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카데미 코스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흥미를 실천할수있으며, 강한 리더십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선호하는 대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Year	Ob			E			R		
	A	A	R	A	A	R	A	A	R
2011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2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3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4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5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6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7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8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9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0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1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2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3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4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5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6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7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8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9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30	44	44	44	44	44	44	44	44	44

Year	Ob			E			R		
	A	A	R	A	A	R	A	A	R
2011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2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3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4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5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6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7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8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9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0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1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2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3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4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5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6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7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8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29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30	44	44	44	44	44	44	44	44	44



**2014년 여름방학은  
청담 ReadWrite에 다양한  
Summer Program과  
함께 하세요!**

- **Summer Critical Reading & Writing (1학년~12학년)**  
설명문, 소설, 이슈토론 등 청담ReadWrite의 프로그램
- **Summer Writing Workshops (3학년~12학년)**  
일주일씩 진행되는 라이팅 인텐시브 프로그램
- **Tween&Teen Creative Writing (3~ 8학년, 9~12학년)**  
Short 스토리(시) (Poem)를 통해 라이팅테크닉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짜여 있는 프로그램
- **Summer Days at ReadWrite (3학년~8학년)**  
리딩/라이팅수업과 여러가지 예체능 수업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가, 축구, 미술, 영화메이킹 등)
- **High school and College Prep Essay Writing (7학년~ 12학년)**  
하이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에세이라이팅프로그램



자세한 스케줄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http://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을참조하세요.  
무료상담은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mailto:Info@BostonReadWrite.com)이나  
전화 857-404-0170 로 연락주세요.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철



미주한인계수교장로회

##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별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츠: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 성양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Church for People of Goodwill Christ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셔틀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http://www.bostonrenewal.org)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로컬, 장거리 이사 전문

시카고, 아틀란타, 버지니아  
- Next Day Delivery (Express)  
TX 지역  
- Two day Delivery (Express)  
L.A, 샌프란시스코 (CA지역)  
- 5 Days Delivery (Express)



**우리 익스프레스 617.699.6272**

성경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 제실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부: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 (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제생원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일 무료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http://www.bkadventists.com)



## 공연은 계속된다

공연 사진을 멋지게 촬영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공연장에는 다양한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가지 설정을 정해놓고 촬영할 수는 없다. 공연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모드를 사용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된다. 메뉴얼 모드는 수시로 변하는 빛의 영향으로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는 않다. 조리개와 셔터스피드값을 정해놓으면 빛의 양에 따라 노출이 심한 오버 또는 언더로 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체적인 빛의 양이 좀 어두운 편이고 그 빛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셔터스피드 모드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은 좋다. 왜냐하면 일단 빛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흔들린 사진을 촬영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무대와 객석의 거리가 좀 멀다면 결과물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셔터스피드를 설정할 때, 가장 많은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셔터 스피드를 잡아 주자. 예를 들어 1/100에서 노출이 2스탑 언더가 나왔다면 셔터가 여유가 있으므로 1/80초로 조절하여 노출을 끌어올려주자.

만약 공연장의 조명이 밝은 편이고 무대와외의 거리가 가깝다면 조리개 모드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단 조리개는 최대 개방시에 화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한두 스태프 정도 조여주고 셔터 스피드를 확인하여 여유 있는 속도가 나온다면 감도를 한단계 내려주자. 그리고 빛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저감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셔터스피드 여유

를 줄이고 저감도로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사진을 건져야 추후에 후보정을 하기에 유리하다.

그리고 노출은 언더로 촬영하는 것이 안정적인 화질이 나온다. 공연장 조명은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카메라와 그 빛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순간 강한 빛이 노출되어 사진이 하얗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러므로 노출은 항상 언더로 놓고 촬영하는 것이 좋고,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 촬영을 몇 차례 거듭해보면서 노출은 얼마나 언더로 놓을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자.

공연사진은 조리개가 밝은 망원렌즈를 사용하자. 무대 위라는 조건 덕분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대상을 사진으로 담기 때문에, 망원렌즈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웬만한 공연장이라 해도 70-200mm와 같은 중망원 렌즈가 지극히 유용하다. 무대는 일반적으로 관람석보다 높기 때문에, 무대 가까이로 직접 다가가는 것은 올려다보는 앵글이 되어서 활용이 상당히 제한적이 된다. 그렇다고 광각 렌즈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망원렌즈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조금씩 이동하면서 찍어도 풀샷부터 클로즈업 샷까지 모두 담을 수 있고, 대상을 팔로우하기도 편리하다. 공연장이 조금이라도 규모가 클 경우 200mm로도 확대 비율이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텔레컨버터를 사용하거나 더 장초점의 렌즈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부분처럼 노출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F2.8

과 같은 밝은 렌즈가 좋다. 그러나 요즘은 카메라의 고감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F4 정도의 고정 조리개 줌 렌즈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밝은 렌즈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조리개가 F5.6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렵다. 렌즈에 내장된 손떨림 방지 기능은 카메라를 안정시켜주는 하지만, 무대 위 피사체의 움직임에는 손을 쓸 수 없으므로, 손떨림 방지 기능에 그다지 많은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저속 셔터 사용에는 큰 도움이 된다.

세밀한 초점 조작, 연속 추적 AF 기능을 사용하자. 과거에는 손으로도 초점을 잘 잡는 사진가들이 있었겠지만, 문명의 이기를 굳이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초점영역 이동과 연속추적AF 서보 모드를 잘 활용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과감하게 연속 촬영하자. 연속추적 AF 기능과 함께 연속촬영 기능이 있다면 연속으로 3~5 프레임, 필요하다면 7~10프레임 가까이서 연속



Photograph by SoungDae Yang

촬영으로 배우나 가수의 표정을 좀더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겠다. 샷을 너무 낭비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왕 연속으로 촬영해야했다면 과감히 적용시키자.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 저장시에 촬영이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기록 속도를 가진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하자.

암튼 공연사진은 어렵다. 그러나 공연은 계속된다. 이론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많은 공연장에서 사진을 찍어보자.

# Crouser & Suh PLLC

##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 신영의 세상 스케치

449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아직 남은 그대의 눈물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될까? 가슴 속 불덩이 식도록 그렇게 조금 뒤에서 지켜봐 주면 안 될까? 아직 남은 속울음을 굶아 터지지 않도록 실컷 울다, 울다가 그렇거리는 눈물 스스로 잦아들 때까지 그렇게 그대 곁에 말없이 머물고 싶다. 아직 남은 그대의 눈물 마를 때까지 그렇게 아무런 말없이 그대의 곁에 가만히 기다림으로 있고 싶다. 아직은, 모두가 치켜든 피켓처럼 빗대 세운 목소리로 아우성이다. 여기저기서 서로의 목소리로 고향을 지르고 있다. 모두를 잃어버려 남은 것 없는 텅 빈 가난한 자나 채우고 채우다 넘쳐버린 부패한 부자나 모두가 각양각색의 제 이유를 달며 까닭을 묻는다.

가끔은 평평 울고 싶은 날 아무런 말없이 어께 하나 빌려줄 진정한 사람이 그리운 날 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 세상에는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롭고 쓸쓸한 날이 살면서 아주 가끔은 있다. 세상을 잘 못 살았을까, 아니면 너무 사람을 가리며 살았을까 싶은 마음에 가만히 생각에 젖어들면 그래, 나 역시 그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몇 번이나 아무런 사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 어깨를 빌려주었든가 하고 생각에 머문다. 사람은 늘 아닌 척 하

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 일에 대해 손익계산서를 훑어보는 버릇이 있기 마련이다. 점잖은 척 체면의 가면을 두르고 말이다.

삶이란 생각한 것처럼 녹록지 않음을 그래서 세상은 때로 차갑고 몰인정하리만치 냉정할 때 참으로 많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이런저런 경험하는 일이 많아져 여기저기서 부딪치기도 하고 썰리기도 하며 그러다 채이기도 하면서 제대로의 인생을 배우고 익히며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그 어떤 각 개인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느낀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때로는 차가운 냉정함이 물불 못 가리는 뜨거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처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현실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내일의 시작이 되고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는 더욱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어린 가슴들을 유혹하고 유린하며 갈취하는 일이 많던가. 어찌 세상을 요즘 떠들썩하게 만든 '구원과'뿐일까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몸과 마음속에 그리고 정신 속에 병이 없

는 것이 아니지 않던가. 그 어떤 종교의 허울 좋은 이름으로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 굶아 터지기 직전의 부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속에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까닭에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더욱 서글퍼진다.

어린 귀한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부모들의 가슴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참담한 현실이 원망스럽다. 지금의 현실에 맞닥뜨린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있는 부모들의 서글픔 앞에 더는 울음을 막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자식을 잃고 불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와 불신에 있는 부모들의 속 울음이 터져 나오도록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곁에서 기다려주면 어떨까. 다 쏟아 내지 못한 분노의 눈물이 훗날 가슴 속 깊이 남아 굳어져 화병이 되지 않도록 지금 실컷 울분을 토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곁에서 기다림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처럼 참담한 슬픔의 현실 앞에 어찌 입이 있다고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새봄, 오뉴월의 폭설로 좋은 계절 누리

지도 못한 채 다 피지 못하고 잘려 떨어져 쌓인 꽃 무더기 앞에서 그만 무릎을 꿇고 만다.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할까. 그저 속절없이 고개 숙인 양심 없는 뻔뻔한 죄인인 것을 말이다. 다만, 먼저 간 어린 영혼들에게 미안하다는 어른의 마음을 한숨처럼 토해낼 뿐인 것을 무슨 입으로 말을 할까. 그 여리고 어린 영혼들 앞에 지켜주지 못하고 바라만 본 어리석은 어른의 죄방관자의 죄목인 것이다.

나다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작품에서 만났던 평생 목에 빨간 A자 글씨의 '주홍글씨'를 달고 살았던 헤스터처럼 너도나도 우리는 모두 다 피지도 못하고 떨어진 꽃들에게 먼저 보낸 어린 영혼들에게 죄인 되어 평생 목에 '방관 죄'라는 죄목의 목걸이를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아들과 딸들을 잃은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죄인의 마음으로 용서를 빌며 살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슬픔과 고통에 있는 그들이 실컷 울분을 토해낼 수 있도록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림으로 있자. 아직 남은 그대의 눈물 마를 때까지...



**Korea University**

**뉴잉글랜드 고려대학교 교우회 모임**

일시: 6월 14일(토) 오후 5시  
 장소: 한영상/이봉춘 교우 자택  
 문의: 김재철 (jaeck79@gmail.com; 617-455-7649)

**고연전 골프대회**

일시: 6월 21일(토) 오전 10시  
 장소: Stow Acres Country Club (North course)  
 참가비: \$100/일인당  
 참가신청: 이태호 (tlee0813@hotmail.com; 617-780-2999)

**보청기가 필요 하십니까?**  
 Dr. 문소라 (Alysia Moon, Au.D CCC-A)

**hear here.**

- board-certified audiologists
- all major hearing aid brands
- 30-day trial period
- up to 4-year warranty

proud carrier of

WIDEX SIEMENS EarQ Westone  
 oticon Starkey ReSound PHONAK

**ASSISTIVE LISTENING DEVICES**  
 Now Available • Call for Details

TV EARS Listening Systems  
 Vibrating Alarm Clocks  
 Amplified phones  
 Vibrating Watches

**Moon Hearing Services**  
 23 Warren Avenue, Suite 130 • Woburn  
 (located in the Choate Medical Center)  
 Call (781) 573-EARS (3277)

MOON HEARING SERVICES  
 www.moonhearing.com



## 빠름 빠름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건 과히 즐거운 일이 아니다. 마주 앉은 아내와 '빨리 빨리' 정신에 대해 느끼고 게으르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기다리기 지루했으니 그저 객적은 소리하고 있었던 게다.

중년사내가 들어 오는 게 보였다. 자리를 찾으려다가 그가 큰소리로 물었다. '빨리 되는데 뭐예요?' 주인 대답이 간결하다. '냉면'. 자리에 앉으면서 손님이 주문했다. '그걸로 줘요.' 식탁 의자를 당기면서 그가 재촉했다. '빨리 주세요.' 주방을 향해 주인이 소리쳤다. '물냉하나, 빨리요.'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받는 일련의 사건이 순식

간에 일어났다. 이런걸 탤덤이라 하던가. 물컵을 입에 대던 아내는 물을 쏟을 뻔했다. 나는 웃느라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다. 너무도 절묘한 타이밍이었으니 말이다. 현대,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왔는지, 손님이 냉면을 흘릴 줄이야마셨는지 그건 기억하지 못한다.

중년사내를 홍보는 건 아니다. 사뭇 식당 손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테니 나와 아내가 웃었던 거다. 역시 내 핏줄엔 한국인 피가 흐른다. 매우 빨리빨리 돈다. 그러니, 내 심장은 언제나 바쁘다. 성질이 급하다는 소리다. 케이티엑스가 무지 빠른 모양인데, 완행열차를 타고 역마다 쉬어가는 여행도 그럴듯 하다.

*'급행열차를 놓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조그만 간이역의 늙은 역무원  
바람에 흔들리는 노오란 국화  
애뜻이 숨어있는 쓸쓸한 아름다움  
하마터면 모를 뻔했지'*

*완행열차를 탄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서러운 종착역은 어둠에 젖어  
거기 항상 기다리고 있거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비듯이 혹은 흠질하듯이  
서두름 없는 인생의 기쁨  
하마터면 나는 모를 뻔했지'  
(완행열차, 허영자)*

한국티비에서 봤다. 무슨 전화기 선전문구다. '빠르-음. 빠르-음'. 역시 전화건 무슨일이건, 빠르게 최고의 덕목인게다. 아직도 그 선전 나오는지 모르겠다. 요즘, 큰 변을 당한 한국사회에선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하다. 이래선 안된다는 말이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시카고 한인 언론인이 쓴 컬럼을 읽었다. 그의 글은 통렬하다. '스스로 통렬한 자아각성' 이 필요하다고 했다. 잘 짚었지 싶은데, 그의 논조에 수긍하면서도 한구석 억울하다. 빨리빨리 문화에 백과사전 책임을 돌렸기 때문이다. '빠름' 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빨리빨리 문화가 어두운 면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살아왔고 그 길만이 살아갈 구멍이지 않았나. 물론, 이제는 구멍 난 양말 기우듯, 헛점은 메워야 한다. 속도전으로 밀어 부쳐 곳곳에 패인 누더기 고속도로 보수공사 하듯 말이다. 하긴 이제는 한박자 늦추기는 늦춰야 한다. 그럴때인데, 너무 늦은 반성은 아닌지 모르겠다.

선운사 화장실이 그렇게 운치가 있단다. 느긋히 앉아 즐길수 있는 장소라 했다. 가보지 않았으니 알수 없다. 완행열차를 타고 선운사에 가는 상상은 느끼고 한가롭다. 빠름 이야기 하다가 말이 느려졌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아가 8:14)

#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믹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1년 학비 \$3,600!!**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품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mailto:Steven@stevenkimlaw.com)

주택 구매용자, 재융자,  
부채통합 용자  
Conventional Loan / FHA Loan  
/ Portfolio Loan

상업 구매용자,  
재융자  
Conventional Loan  
/ SBA Loan

**류 영욱**  
Young Uk Lew  
NMLS#164694

Cell: 617.777.2929  
Fax: 617.284.6196  
ylew@indmortgage.com

**independent Mortgage** *Boutique broker for individualized residential & commercial loans*

경험과 신뢰를 자랑하는 보스톤의 모기지 박사  
we arrange but do not make loans.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Licensed by the Division of Bank and Loan Agencies, NMLS #641207



# 스티븐 드루 레드삭스에 다시 합류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월드 시리즈를 끝으로 보스톤 레드삭스를 떠났던 스티븐 드루가 다시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다시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게 된 셈이다.

월드 시리즈 우승 직후 레드삭스는 계약이 만료되는 드루에게 1년, 1410만 달러의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켈리파잉 오퍼를 포함하고 있었고, 드루는 다년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켈리파잉 오퍼를 거부한 선수를 영입한 팀은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게 된다. 31세의 유격수에게 다년 계약을 제안하며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포기할 팀이 FA 시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드루는 레드삭스를 포함한 어떤 팀과도 올해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계약

지난 시즌 이후 소속팀 없이 개인 연습을 해왔던 스티븐 드루가 다시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을 맺지 못했다. 올해 레드삭스는 베테랑 유격수 드루를 포기하는 대신에 기존의 유망주를 선택했다. 지난 해 3루수와 유격수를 번갈아 맡았던 잰더 보거츠를 주전 유격수로 발탁하고 부상으로 마이너 리그에 있었던 월 미들브룩스가 주전 3루수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 미들브룩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불가피하게 보거츠가 다시 3루수를 봐야 하고, 유격수 자리가 비게 된 것이다. 결

국 레드삭스는 드루를 다시 선택하게 되었다. 드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레드삭스 유니폼을 다시 입게 되어 아주 기쁘다” 며 “내가 알고 있던 동료들이 여기에 있다. 작년에 멋진 한 해를 보냈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오프 시즌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혼자 연습을 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 드루는 소속 팀이 없는 상태에서도 몸 만들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매일

경기가 있는 스케줄을 가정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 연습을 해왔다. 드루는 “난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순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항상 준비된 상태를 만들었다. 어떤 팀이 나를 선택할지 몰랐지만, 곧 나를 필요로 하는 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다” 고 말했다. 올해 레드삭스는 25세 이하의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며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레드삭스를 떠났던 드루가 시즌 중간에 합류한 것을 보면 젊은 유망주들이 아직은 유망주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그러나 레드삭스는 드루가 원했던 다년 계약이 아닌 올해 시즌까지만 한 시적으로 기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당장 주전 유격수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유망주를 키워 팀의 주축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드루는 1년, 1천만 달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액수만 놓고 보면 작년 시즌이 끝날 때와 비교하여 4백만 달러가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켈리파잉 오퍼가 없는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시즌이 끝나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FA 시장에 나갈 수 있게 된다. [jsi@bostonkorea.com](mailto:jsi@bostonkorea.com)

‘십팔기’ 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무술로 오인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인식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영화를 통해 중국무술이 들어오면서 대중들에게 잘못 전달된 것 같다. 긴 설명이 필요없는 질곡과 혼돈의 근현대사의 ‘보릿고개’ 를 지나 오면서 우리는 우리 전통무예의 연구 보다는 무술영화와 무협소설이 더 흥미있는 ‘오락거리’ 였다. 그리고 사실史實의 고증보다는 한 가닥의 아이디어로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이 만든 픽션을 때로는 대중들이 여과 없이 받아드리면서 불행하게도 정설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십팔기는 사도세자가 영조 25년(1749년)에 훈련도감 교련관 임수웅과 함께 18가지의 무술, 즉 ‘무예제보’ 에 실려있는 6기인 곤방, 등패, 낭선, 장창, 당과, 쌍수도 에 12기를 더하여 지상무예18기인 ‘무예신보武藝新譜’ 를 편찬하였다. 이 무예신보는 전하지 않으나, 그 후 정조 14년에 박제가, 이덕무, 백동수 등이 왕명을 받들어 이를 계승하고 보완하여 편찬한 ‘무예도보통지’ 에 그림과 함께 소상히 전하고 있다. 이 무예신보를 정리한 사도세자는 영조를 대신하여 15세 때 서정을 대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왕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참혹하게 죽임을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36 사도(思悼)세자와 십팔기(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당한 비운의 왕세자이다. 조선시대의 역사 속에서 많은 왕자들이 왕자라는 이유로 정쟁에 휘말려 참혹한 죽음을 당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당당히 차기 보좌에 오를 세자들도 많이 죽음을 당했다. 이 방원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 에서 죽은 의안대군(이방석 - 이성계의 8남, 막내아들)으로 부터 일본에 유학이라는 명분하에 인질로 잡혀간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까지 수 많은 왕세자들이 비운의 죽음을 당했다. (영친왕 이은은 1907년 황태자에 책봉되었으며 그 해 12월 총독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일본에 인질로 갔다. 1910년 국권상실로 순종이 폐위되자 왕세제로 격하되었고, 1920년 일본 왕족인 나시모토의 딸 마사코(方子)와 내선일체 정책에 따라 정략결혼을 했다. 1926년 순종이 죽고 형식상의 왕위 계승자가 되어 이왕이라 불리었으나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육군사관학교, 육군대학을 거쳐 육군중장을 지내기도 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어도 귀국하지 못하고, 또한 일본의 패망으로 황족의 특권도 상실되었으며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으로 등록하여 지내다가 1963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주선으로 부인 이방자와 함께 귀국하였다

. 1970년 74세를 일기로 죽었다.) 사도세자의 부친인 영조는 적장자가 없었다. 정비인 정성왕후 서씨가 자식이 없이 1757년 66세를 일기로 죽고 나서, 1759년 영조가 66세의 나이로 15세의 김한구의 딸과 가례를 올렸다. 그녀가 정순왕후 김씨이며, 계비 김씨 역시 자식이 없다. 앞서 영조는 후궁인 정비 이씨의 소생 효장세자(진종)를 세자로 책봉했으나 1728년 10세의 나이로 병사하였다. 그리고 나니 왕자는 영빈 이씨의 두 살난 아들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 영조가 마흔이 넘어 출생한 사도세자는 2세 때 세자로 책봉되었다. 사도세자는 3세 때에 부왕과 대신들 앞에서 ‘효경’ 을 외웠고, 7세 때도 ‘동몽선습’ 을 독파할 정도로 영리하였으며 10세 때는 소론이 노론을 제거한 ‘신임사화’ 를 비판할 정도로 판단력이 있었다. 그리고 15세가 되어서는 영조가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정정을 하게 하였다. 그가 부왕을 대리하여 서정을 하자 남인, 소론, 소북세력들이 세자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으려는 기세를 보였고, 사도세자를 싫어하던 노론세력들이 후궁 속의 문씨와 후에는 김한구의 딸 계비 정순왕후와 함께 세자를 무고하였다. 이에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영조는 세자를 자주

불러 심하게 질책하였으며, 이 때문에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이면서 함부로 궁녀를 죽이고, 여승을 궁으로 불러 들이고, 또한 물레 궁을 빠져나가 관서지방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돌발적인 행동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1762년 계비 정순왕후의 아버지 김한구와 그의 일파인 흥계희, 윤급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이 ‘세자 비행 10조목’ 상소를 올렸다. 이에 분개한 영조가 세자를 창경궁의 휘령전(현재의 문정전)으로 불러 자결을 명했다. 세자가 이에 불응하자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한 다음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였다. 그는 8일째 되는날 죽었으며 그때 그의 나이 28세였다. 그 후 영조는 아들을 죽인 것을 후회하면서 생각할수록 서럽다는 뜻의 ‘사도(思悼)’ 라는 시호를 내렸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조정은 소용돌이를 치면서 그 후의 조선왕조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죽음을 당연시한 ‘벽파’ 와 동정한 ‘시파’ 로 나누어지게 된다. 즉 훈구파와 사림파로 시작된 당쟁이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에서 바야흐로 시파時派와 벽파僻派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동정하고 정조의 정책에 편승하는 부류라는 의미로 노론의 일부와 소론과 남인세력이었고,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대립세력으로 노론의 대다수였다. 벽파는 정조대에서는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1800년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등극하게 되니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시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 Mu Han

TOTAL MARTIAL ARTS, INC.  
무한무도회



“ To be the best of the best...”



## ART SKILLS

World Taekwondo Federation  
Korea Professional Taekwondo Federation  
Korea Jing Wu Kung Fu Association  
Korea Kyeok Too Ki Association  
Korea Hapkido Association

## LOCATIONS

**Attleboro Mu Han Total Martial Arts**  
23 N.main St. Attleboro MA 02703  
Ph) 508-226-0707, 508-226-0808

**Franklin Mu Han Total Martial Arts**  
456 W.Central St. Franklin MA 02038  
Ph)508-528-7772, Fax) 508-528-7797

**Taunton Mu Han Total Martial Arts**  
147 Broadway Ave. Rte 138. Taunton MA 02780  
Ph) 508-880-9200



### Grand Master Kang

- 2011 – Pan-America Kukkiwon Grandmasters' Federation Executive Office
- 2010 – Korea Taekwondo Association(KTA)in USA, Secretary General
- 2007 – KTAin USA, Northeastern Regional Vice President
- 2006 – NEKTA (New England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2011 – Korean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Referee Chairman
- 2009 – Mu Han Martial Arts Director of Discipline
- 2008 – Hanmdang, International Referee (Kukkiwon, World TKD Academy)
- 2008 – TKD Hanmadang, Ambassador in U.S.A.
- 2007 – Greater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7 – N.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 – TaeKwonDo 7th Degree Black belt (Kukkiwon)
- 2005 - U.S.T.L.U.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4 – State of Georgia, Deputy Marshal
- 2004 – U.S.T.W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3 – World Taekwondo Federation International Referee
- 2003 – USTU Referee of the Year
- 2002 – Featured Cover Story, Taekwondo Times Magazine
- 2001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Director, Boston
- 1999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Head Coach, New Englan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Master Certifie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International Referee
- 1993 –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Kyuk Too Ki Instructor's License
- 1990 – Director,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Taekwondo Instructor's License
- 1989 – Master Instructor Certified by Kukkiwon

### Master Oh

- 2002 Founded Mu Han Total Martial Arts
- 1999 Demonstrated in Canada and US
- 1998 1st International Team Pro Taekwondo in Korea
- 1997 Head Instructor in Pro Taekwondo Federation in Korea
- 1997 Taught Special Force 707 & Korea West Point
- 1992 1st Place -75kg Wu Shu Sparring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outhern First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pear Division in Seoul, Korea
- 8th Degree Black Belt in Korean Professional Taekwondo
- 6th Degree Black Belt in Jeong Mu Kung-Fu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International Office Chairman

### Master Lee

- 2009 Mu Han Martial Arts Instructor
- 20 Years teaching experienced
- Taekwondo 5th Degree Black Belt(Kukkiwon)
- Demonstration in Europe
- Teacher Certification in Korea
- Certification for Convoy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uHanMartialArts?rf=115870451838012>  
U tube <https://www.youtube.com/user/MHtotalmartialarts>  
Web site [www.muhanmartialarts.com](http://www.muhanmartialarts.com) / [www.franklinmartialart.com](http://www.franklinmartialart.com)

공식협력업체 :

**보스톤 정관장**  
대한민국 흥삼의 힘!  
문의 전화 781-238-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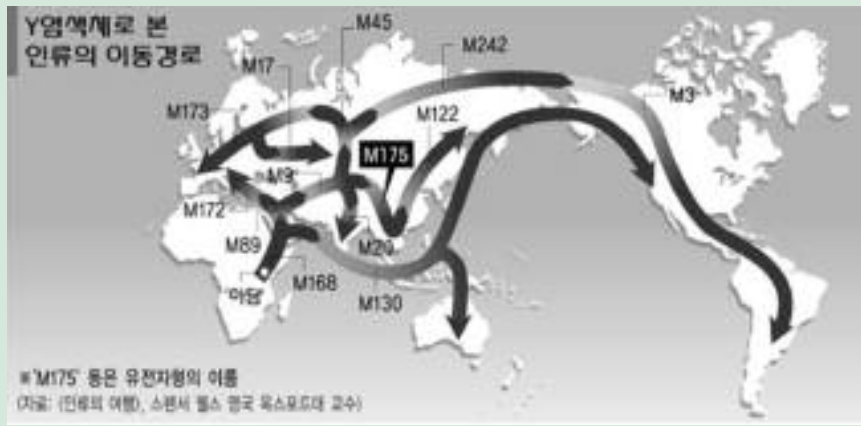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Vice President Kwang O Kim / 김광오  
Direct: 617-792-8615



박영철(유전학 박사)

서울대학교 농생물과 졸업, 1968년 도미 유학  
 University of Minnesota, Department of Genetics and Cell Biology, Ph.D.  
 Florida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Statistics, Research Faculty  
 Michigan Cancer Foundation, Chief of Biostatistics  
 Warner-Lambert/Parke-Davis Pharmaceutical Research, Manager  
 Genetics Institute, Associate Director  
 Pfizer/Wyeth Pharmaceutical Research, Director  
 40년간 대학교 및 세계적인 제약연구소와 바이오텍 연구소에서 신약개발을 하고 최근 은퇴함. 현재는 우리몸에 영원히 살아있는 유전자를 통하여 보는 역사, 고고학, 신학의 관계를 연구중임.

## 보스톤 코리아 초대석 한국인은 어디서 왔는가 1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국 역사를 배울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소위 삼국시대에 관해서는 역사시간에 자세히 배운 기억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고 고조선이 언제 어디에 있었으며 한국인이 언제 한반도로 이동하였는지 믿을만한 기록이 거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도 삼국시대 전의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최근 과학 특히 유전과학의 발전으로 한국인이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DNA 증거로 볼 때 해안 루트로 동남 아시아에 도착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에 약 3만 년 전과 1만 5천년 전에 정착한 선주민들. 이들의 유전자가 약 30~40% 한국인의 몸속에 남아 있다. 중앙 아시아와 시베리아를 거쳐 내려와서 한반도에 약 1만년 전에 정착한 주민들. 이 북쪽에서 내려온 이들의 유전자가 약 60~70% 한국인 몸속에 남아 있다.

### 과학적 이브와 아담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는 어떤 여성이 약 9만 9천 ~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나타났다고 여러 과학

저널에 보고 되었다. 20 만년 전 유골도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 그 여성이 약 5만 ~ 6만 5000년 전에 아프리카를 탈출하였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세계 각 지역으로 이주하여 모든 현재 살아있는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다 (Stringer et al, Science 239:1263,1988). 미토콘드리아(세포 안에 존재하면서 호흡을 수행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소기관) DNA를 분석하여 이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 '이브'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이 여인을 '미토콘드리아 이브' 혹은 '과학적 이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어머니로부터 딸에게만 전해지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수정을 일으켜 다음 세대의 아기가 만들어질 때 정자 꼬리 부분에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떨어져 나가고, 핵이 있

는 머리부분만 난자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남자를 통해 아들에게만 전해지는 유전자로 구성된 Y염색체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Y염색체 연구로 지금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남성들의 조상을 추정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남자를 'Y염색체 아담' 혹은 '과학적 아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과학적 아담이 약 6만 9천 ~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다고 여러 문헌에 보고 되었다.

어떤 종족이 한곳에 모여 오래 살아가면 그 사람들의 유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변이도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주해 가는 사람들의 유전적 변이는 원 거주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유전적 변이보다 다양성이 줄어든다. 전체 주민 중 일부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 유전형, 그것도 후손유

전형을 가진 사람만이 이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제 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오사카, 중국 연변 지역으로 많이 이주했다. 오사카에는 경상도 사람들과 제주도 사람들이 많이 갔고, 연변에는 이북 사람들, 특히 함경도 사람들이 옮겨갔다. 그래서 오사카와 연변의 한인 동포들이 가진 유전자의 다양성은 그 기원지인 한국 전체 인구의 유전적 다양성에 비해 훨씬 덜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서 유전적 변이도가 가장 다양하다는 것은, 아프리카가 인류 기원의 중심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은 대략적으로 남방 해안 루트를 거쳐 먼저 처음과 두 번째로 정착한 남방계 사람들의 유전자를 30~40% 정도 가지고 있고, 중앙 아시아와 시베리아 대륙의 바이칼 호수 부근에서 북방 루트를 거쳐 나중에 세 번째로 정착한 북방계 사람들의 유전자를 60~70% 정도 가지고 있다 (이홍규, 한국인의 기원, 2010).

(다음호에 계속)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 형 략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0. No.21 May 23 2014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CHINE SHOP**

Seeks experienced setup machinist for machining/turning centers. Also looking for machine operator who can handle machining/turning center.

(Available training)

Boston Machine, Inc.  
Tel: 978-458-7722  
E-Mail: info@bostonmachine.net

**Seafood Distr. Sales Rep (Boston/region)**

True World Foods supplies fresh and frozen seafood to sushi restaurants. Sushi experience, able to speak Asian language(s) preferred. Fax resume to 617-269-8342 or email through this ad. D.Stadelhofer <david-st@trueworldfoods.com>

**뉴튼 네일살롱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초보자.기술자.중간 기술자.환영\*\*  
\*\*자격증 소지 하신분.또는 취득 가능 하신분\*\*

{저희 가게는 뉴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일 살롱중 가장 단골고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6년차 가게 입니다.  
주 7일간 오픈하며 풀타임에 한해선 (휴가. 및 공휴일) 페이도해드립니다.(파트타임.토 일 하실분 환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617-678-4780/ 617-559-9953

야수  
웨이터, 웨이츄레스 구함  
T. 617-738-2244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드라이클리닝 셔츠 출세일합니다.  
픽업 & 딜리버리  
T. 978-766-683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테일러샵 매매 (Hampshire 지역)  
옷수선 전문, 텍시도 렌트, 주인 은퇴  
T. 413-320-6284

**N[매매]**  
뷰티서플라이 매매.  
한곳에서 10년 넘게 영업 하였고 리타이어 하기 위하여 급매 하고자 합니다  
면적 3,000sf, 연매상 \$500,000 , 매매가 \$250,000  
위치:테네시 멤피스 Neighbor Food 월마트,뷰티살롱및 이발소가 많은곳에 위치함.  
T. 901-267-2991

**N[매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N[매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 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N 드랍 앤 테일러 샵 매매**  
처음 비즈니스를 도전하시는 분에게 적합하고 부담없는 장소 (MA)  
모든 시설 브랜 뉴  
풍부한 파킹랏, 저렴한 렌트  
T. 978-761-0897

**N[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여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N[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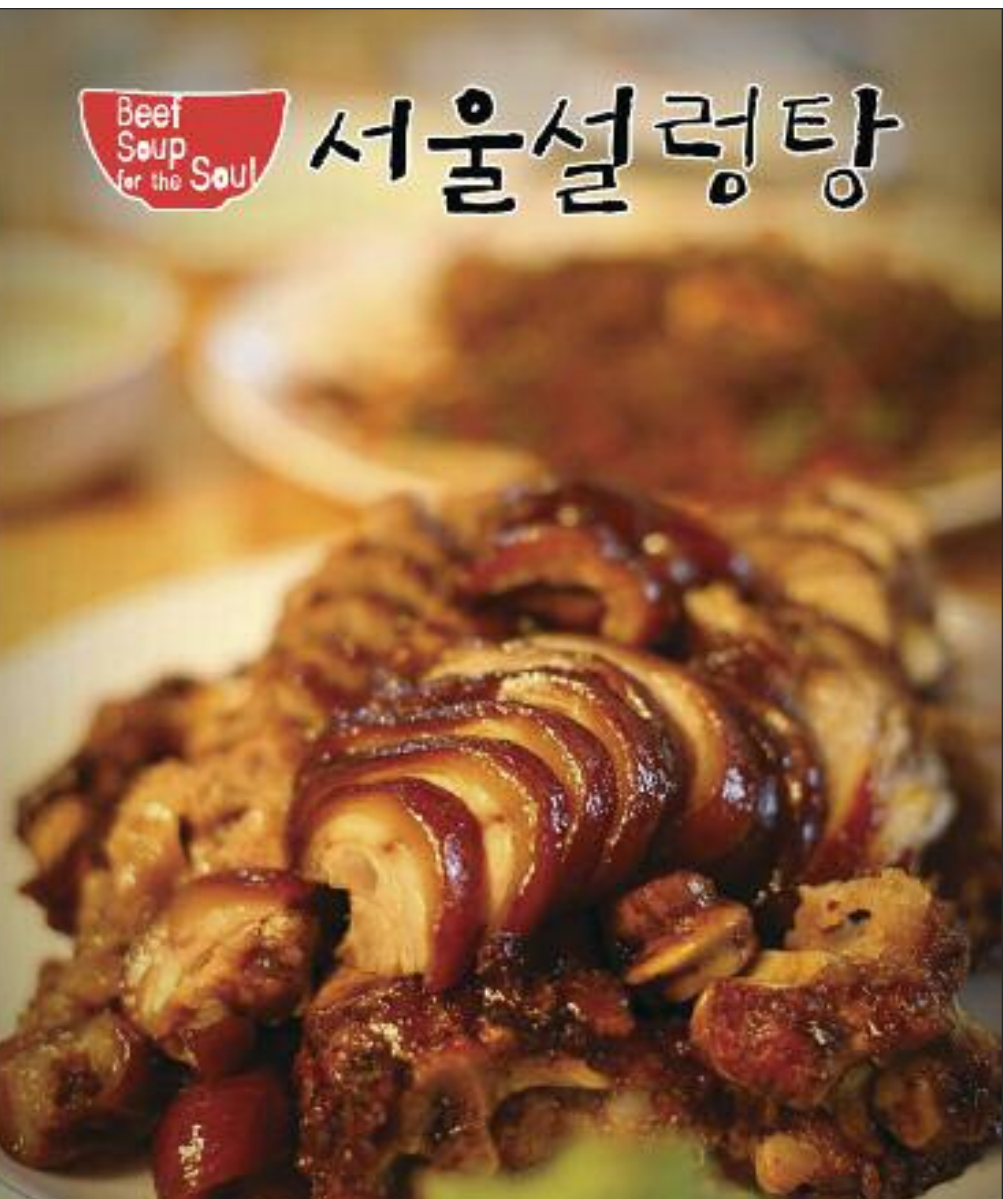
**N[구인]**  
둘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서울설령탕 주류판매개시!**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파전,족발,보쌈,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령탕**



**1245 Commonwealth Avenue, Allston**  
**617-505-6771**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정보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환기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철학자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978-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대한인재단체협의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백악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산악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508-455-149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978-869-2596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617-82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시간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클로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영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 회계사	508-584-5860
한미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성요한 교회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티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성장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5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 병원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4년 5월 12일 ~ 5월 18일

##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미운오리새끼	지오디
02 너를 위해	정기고
03 봄 사랑 벚꽃 말고	HIGH4, 아이유
04 중독(Overdose)	EXO-K
05 나의 옛날 이야기	아이유
06 200%	악동뮤지션
07 야생화	박효신
08 Night And Day	휘성
09 Mr.Chu (On Stage)	Apink
10 지우고 싶다	포맨

**1위**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29.6%



2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3.5%



3위 KBS1 KBS 9시뉴스 18.6%

3	KBS2	일일드라마(천상여자)	18.6%
5	KBS1	대하드라마(정도전)	18.2%
6	SBS	아침연속극(나만의당신)	13.9%
7	SBS	드라마스페셜(너희들은포위됐다)	12.5%
8	MBC	주말드라마(왔다장보리)	12.4%
8	SBS	SBS월화드라마(닥터이방인)	12.4%
10	SBS	정글의법칙N브라질	12.2%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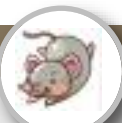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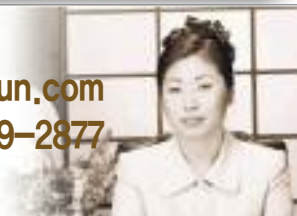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9			8		4			
			3	1			8	
	6			7				4
	4	2			5		3	
8				2				7
	9		7			1	2	
6				3			4	
	8			9	1			
			5		7			2

5월 25일 -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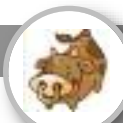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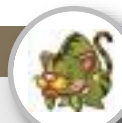
### 쥐띠 |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

● 운수: 추진하는 일의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야 후회가 없습니다. ● 금전: 용통성을 갖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너무 실리를 앞세우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애정: 정신적 갈등이 심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까지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5, 29일 길일. 26, 28일 주의.



### 소띠 | 인정받게 되는

● 운수: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옵니다. 보람도 느끼고 뿌듯한 휴식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거래에서 다소 거북한 일이 있어도 서서히 얼음이 녹듯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 애정: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6,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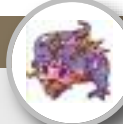
### 범띠 | 뜻밖의 좋은 이성을 만나는

● 운수: 여러모로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과로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 금전: 주위에 대한 배려나 투자는 곧 자신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 주면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 애정: 초대받은 장소에 가서 뜻밖의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될 수 있는 때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7, 31일 길일. 25, 28일 주의.



### 토끼띠 |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이 생기고

● 운수: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이 생기고 그 동안의 주위의 오히려 모두 풀립니다. 소망했던 일도 성취되었군요. ●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는 주입니다. 나갔던 돈이나 그 동안 받지 못해서 고심하던 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애정: 변화를 갖게 됨으로써 다소 안정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별 때일수록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7,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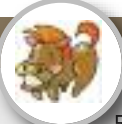
### 용띠 | 땀을 적당히 잘 들어

● 운수: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기에 적합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쌀로 밥을 지어도 땀을 적당히 잘 들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 금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수입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 애정: 화목한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디를 가나 주위를 밝게 해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 뱀띠 |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

● 운수: 머리와 가슴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던 편견과 선입관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주입니다. ● 금전: 머뭇거리지 말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기회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므로 점점 상대가 더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6, 30일 길일. 28, 3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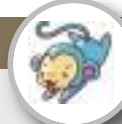
### 말띠 | 즐거움이 기대되는

● 운수: 일한 만큼의 보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해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당장 큰 이익은 얻을 수 없더라도 앞날에 즐거움이 기대되는 주입니다. ● 애정: 이성 교제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만나도록 하세요. 쉽게 생각하고 만나면 심각한 상황까지 갈 우려가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7, 31일 길일. 29, 30일 주의.



### 양띠 | 더 나은 발전을

● 운수: 다른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 의욕이 생겨서 더 나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금전: 가까운 주위 사람과의 금전 거래나 보종 등은 일단은 피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가 있는 곳을 택하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28, 31일 길일. 27, 3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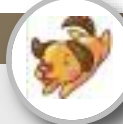
### 원숭이띠 | 원만한 관계 유지를

● 운수: 독불장군격의 행동은 따돌림을 당하게 할 수 있으니 분수에 맞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 애정: 서로의 성격 탓에 잦은 언쟁이 예상됩니다. 실사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6, 29일 길일. 28, 31일 주의.



### 닭띠 | 활력이 되살아나는

● 운수: 새로운 일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 금전: 위축된 마음에서 벗어나 활력이 되살아나는 때이니 무슨 일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불협화음 관계가 나아지고 사랑도 무르익는 주입니다. 대단하지 않게 여겼던 이성에게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30일 길일. 29, 31일 주의.



### 개띠 | 감정조절을 잘해야

● 운수: 모든 일을 한 템포 늦춰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감정이 앞서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지출도 많으니 돈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가정적으로 원만하지 못합니다. 갈등이 심해져 모든 일에 짜증이 앞서기 쉬운 때이니 감정조절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7, 31일 길일. 29, 30일 주의.



### 돼지띠 | 근본적인 치유 없이

● 운수: 직장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회사를 그만 둘 우려가 있으니 스스로 감정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지기 쉽습니다. 현상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반마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 애정: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근본적인 치유 없이 피하려고만 하면 더 답답해지고 일이 꼬이게 될 뿐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9,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 '골든 크로스' 이시영 본격 멜로 확 바뀐 스타일을 선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사랑은 여자를 변하게 한다. '골든 크로스'의 이시영이 김강우와의 본격 멜로의 시작과 함께 확 바뀐 스타일을 선보여 화제다.

KBS 2TV 수목드라마 '골든 크로스' (유현미 극본, 홍석구·이진서 연출)의 이시영(서이레 역)이 김강우(강도윤 역)와 연인 사이로 발전된 이후, 전과는 180도 다른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 것.

그간 이시영은 난폭한 피의자를 얻어 치기 하고, 사건 현장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기동력 있는 검사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야상 점퍼' '라이더 재킷' '가죽 레깅스' 등 활동성이 좋고, 보이시한 캐주얼 스타일을 연출해왔다.

그러나 지난 9회 방송 이후, 김강우와 이시영의 러브라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이시영의 옷차림에 변화가 생긴 것. 점퍼를 벗고, 몸에 핏감을 살린 재킷과 코트, 블라우스 등으로 여성미를 수놓았다. 파스텔 블루 컬러의 백으로 화사하게 포인트를 준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시영의 의상



에 대해 '골든 크로스' 제작진은 "이시영의 의상 컨셉트는 이레의 캐릭터에 100% 맞춘 것"이라면서 "이레의 감정선의 변화에 따라 그의 의상도 바뀌는 것을 보는 것도 '골든 크로스'를 보는 색다른 재미 중에 하나"라고 전했다. '골든 크로스'는 상위 0.001%의 비밀클럽 '골든 크로스'의 암투와 음모로 희생된 평범한 한 가정의 복수가 펼쳐지는 탐욕 복수극으로 22일 밤 10시에 방송한다.

s.yang@bostonkorea.com

## 하지원, 한류 붐을 타고 할리우드 진출 하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한류 붐을 타고 국내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지원(36)도 그 대열에 동참할 전망이다.

22일 연예계에 따르면, 하지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20세기폭스의 제프리 갓식 사장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원은 이 만남에서 할리우드 진출에 대해 논의했으며, 차기작인 영화 '허삼관매혈기'의 촬영이 끝나는 올 가을께 다시 폭스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yang@bostonkorea.com



## 개과천선 채정안, 똑똑한 스타일링 연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MBC 수목드라마 '개과천선'에 첫 등장한 채정안 패션이 화제다.

김명민의 로펌 사무실을 찾은 채정안은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패미닌룩을 선보였다. 루즈한 핏의 깨끗한 화이트 컬러 블라우스에 화이트 레이스 스커트를 매치해, 원 컬러 스타일링이지만 전체적인 룩의 디테일에 차이를 준 똑똑한 스타일링을 연출했다. 채정안이 연출한 룩은 제일모직 '구호' 제품으로 알려졌다.

s.yang@bostonkorea.com



##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확실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음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시작부터 마감까지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우 최대 한의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의 매출실적 / 1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206-734-1407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70,000  
Sharon, MA  
3 Beds, 3 Baths, 1696 sf.  
좋은 학군, 살기좋은 타운  
잘 관리된 정원  
이현주 401-935-3397



\$668,000  
Sharon, MA  
4 Beds, 3.5 Baths, 2404 sf.  
넓고 밝은 실내공간  
Finished basement  
이현주 401-935-3397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Single Family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182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559,000  
Winchester, MA  
4 Beds, 2 Baths, 1969 sf.  
주택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에게  
적합한 집  
OT Kim 617-620-8242



\$899,900  
Lexington, MA  
4 Beds, 3 Baths, 2534 sf.  
넓은 공간,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bathrooms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콘도 Condominium



\$195,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480,000  
Quincy, MA  
3 Beds, 2.5 Baths, 2448 sf.  
조용하고 깨끗한 콘도  
Jason Jeon 617-642-5670



\$319,900  
Northborough, MA  
2 Beds, 2 Baths, 1640 sf.  
좋은 가격의 고급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부동산 협회(NAR) 회원 / 2014년 4월 / 100대 우수 에이전트 /  
2013년 최우수 에이전트 / 2014년 최우수 에이전트 / 2014년 최우수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 Drop off Store



\$60,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 Cart Business in Mall



\$80,000  
**Boston, MA**  
Downtown Mall 안에 위치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 Nail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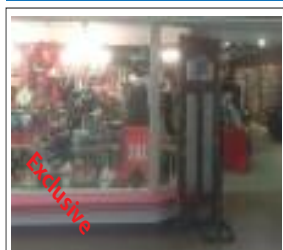
\$89,900  
**Boston, MA**  
Well established nail salon  
located in a high traffic area  
Hazel Seung 617-895-7676

###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 Jewelry Business



\$99,999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 E-2 투자 이민

**E-2 투자 이민  
확실한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l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 러프에서의 그린 공략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가 LPGA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다. 약 2년전인 15세에 아마추어 신분으로 LPGA 최연소 우승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얼마전에는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한 리디아 고는 몇주전 스윙잉 스퀴츠 LPGA 클래식 경기에서 우승을 하였다. 지난 경기이지만 다시보기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 경기를 자세히 보았다. 긴장감이 넘치는 아주 재미있는 경기였다. 마치 오래전 양용은 선수가 PGA Championship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를 제치고 우승을 하는 듯한 짜릿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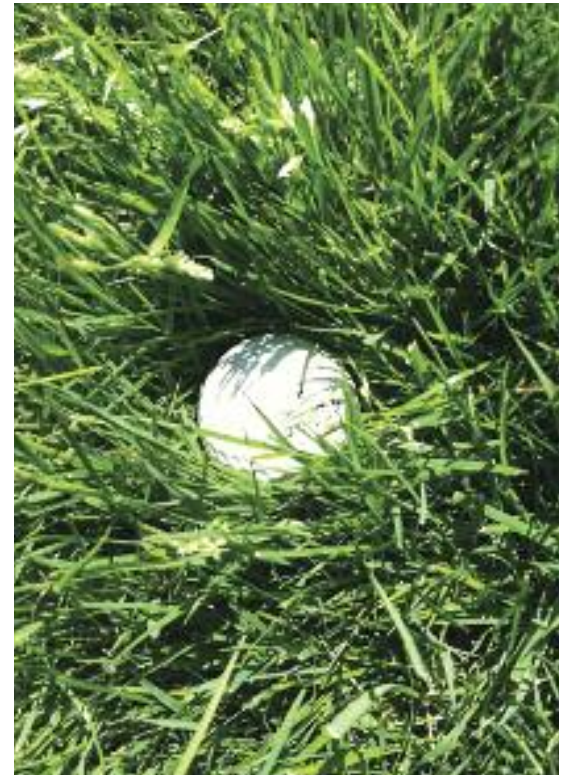
두경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마지막 홀에 이르러서도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마지막 홀에서 티샷을 한 것이 모두 러프에 빠져 그린을 향한 어프로치 샷이 그리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먼저 샷을 한 상대방 선수들의 공이 그린 위에 아주 잘 올라가서 잘못하면 추격을 허용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양용은 선수는 200야드 정도의 거리를 하이브리드를 사용하여 그린에 잘 안착시켰고 리디아 고는 약 100야드정도 되는 거리를 아마도 웨지중에 하나를 사용하여 그린에 잘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두경기에서 보여주듯이 첫째로는 정신적인 압박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담력과 침착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나가듯이 18홀을 도는 골프의 여정도 온갖 우여곡절을 거치는데 이러한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가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샷이 나오는지 알고 실제로 그렇게 공을 칠수 있는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한다. 러프에

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가 무엇인지 많이 관찰해 보았다.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러프에서의 샷이 공이 얼마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클럽을 너무 길게 잡고 공을 친다는 것이다. 리디아 고에게 우승을 안겨주는데 결정적인 샷을 한 18번홀의 러프샷을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클럽을 짧게 잡고 샷을 한 것을 볼수 있다.

손가락 2개 정도의 길이만큼 짧게 그림을 잡고 샷을 하면 러프의 클럽이 감기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서 공을 높이 올리겠다는 마음으로 골프 클럽을 일찍 올리면 탑핑의 위험이 항상 사리고 있으니 공을 맞히고 클럽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개를 들어주는 기본기를 유지한



##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상성 (the normalcy) 이란 무엇인가?

아들아, 사실 로보카 폴리는... 세월호 사건 이후 한 달, 뉴스홀릭으로 살았다. 사건이 있던 당일 방문했던 지인 집 TV 속 한국 뉴스를 통해 사고를 "목격"한 우리 집 꼬맹이는 그날 밤 그림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은 뉴스를 습니다. 오늘은 무슨 뉴스냐면 아주 큰 배가 바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구조대가 구하러 왔습니다." 아이는 45도 기울어진 여객선 옆에 밧줄을 내려 사람을 구하고 있는 헬기와, 한글로 또렷이 해/양/경/잘이라고 적혀 있는 구명정 위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아 (구해주는) 그림을 그렸다.

한때 유아용 애니 로보카 폴리에 열광했던 덕에, 1학년 아이의 세계 속에서조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구하러 달려오는 '용감한 구조대'의 존재는, 우리를 사고의 공포로부터 방어하는 믿음직한 친구들이었다. 우리집 꼬맹이의 그림에는 자신이 눈으로 본 리얼리티와 잠재의식 속의 '신뢰' 혹은 당연한 바램같은 것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연한 믿음과 소망은 배반당했고, 난 아이에게 해줄 말을 잃어버렸다. 어쨌거나 정부의 '정상적인' 재난관리 시스템하에서 세월호 사고가 지금 수준의 '참사'가 되기는 매우 힘들었을테니까.

2014년, 비정상성의 정상화를 말하는 대한민국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4월 29일, 국무회의에 앞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중).

비/정/상/의/정/상/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모토였음을 알게되었다. 학자들이 혹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왜 이런 창조적인 국어 사용에 입다물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 '씹 선비' 소리 들을까봐?) 모르겠다. '꽃보다 남자'를 능가하는 이 애매한 표현을 들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뻑" 소리가 자동으로 지원되는 느낌이다. (프랑기염의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 오마주로 삼았...다면 아마 내용은 꼼꼼히 안 읽으신 듯.)

'비정상성의 정상화'라는 모토는 '비상식적인 관행 혹은 여러가지 부조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일게다. 그러나 내게는 이 말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범주화하겠다는 말처럼 들리곤 한다. 그러다가도 '정상'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어떤 종류의 규범 혹은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는 까닭에, 국민인 나도 '국가 (라고 쓰고 대통령과 집권층이라고 읽는다)'가 허용한 정규분포도 (normal distribution)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비정상성의 범주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이 느낌은 어쩌면 호들갑이 아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세월호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조짐이 있으니 경제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을 때 즈음, 그녀가 강조해온 "비정상성의 정상화"는 1920년 미국 대선의 공화당의 슬로건이었던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Normalcy)"와 닮아있었다.

1920년 미국 대선,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그 뒷얘기 세계 제 1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도 사실 여러 모로 '정상'이 아니었다. 전쟁 중이었던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의 여파와, 참전과 함께 통과되었던 방첩법 (Espionage Act)의 도움으로 미국 전역에 적색 공포 (1st Red Scare)가 자리 잡았고, 이른바 "비-미국적인 (Un-American)" 것들이 배격당했다.

미국 사회는 노동조합 운동, 사회주의와 아나키즘을 포함한 급진적인 혹은 '과격함' 이데올로기에 극단적인 배격을 보였고 남동부 유럽 출신 및 아시아 출신에 대한 반이민 정서도 팽배해졌다. 1919년 말에서 1920년 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약 500여명의 위험한 사상을 가진 외국인들을 국외로 추방했다. 폭탄 테러가

뒤따르기도 했다. 이 시기는 흑인들에게도 흑독한 시기였다. KKK가 부활했다. 동등한 시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해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1차 대전 전에 참전했던 숱한 흑인들을 타겟으로 한 린치,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도시 시카고에서 아칸소주의 일레노에 이르기까지 약 25건의 크고 작은 '유혈' 인종 폭동이 발생했다.

비정상적인 광기의 시절임에 분명한 그 때,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정치력은 이미 바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Normalcy)"는 슬로건을 내건 공화당의 워렌 하딩 Warren Harding (부통령: 칼빈 쿨리지 Calvin Coolidge) 60퍼센트가 넘는 지지율로 가볍게 대권을 거머쥐었다.

그런데, 하딩 행정부가 극복하려던 "비정상"이란 적색공포와 반이민, 인종주의로 점철된 광기어린 사회분위기가 아니라, 1차 대전 이전 등장했던 각종 혁신의 물결이었다. 과거 칼럼에서도 언급했던 하딩 측근들의 축재와 부정부패나 그 자신의 섹스 스캔들은 차치하더라도, 여러 정책이 그다지 정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과거로 회귀했다. 대표적으로 하딩-쿨리지-후버 대통령 재임기 미국은 공공연히 "미국의 일은 비즈니스"라는 말로 공급자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쳤다. 부자를 위한 감세, 산업자본가들을 위한 낮은 관세를 정책은 이른바 부유층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야 사회 전체에 득이된다고 보는 (스스로 수퍼 헤비급 부자였던) 재무 장관 앤드류 멜론의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에 기댄 것이었다. 그 귀결은 알다시피 대공황. 그들만의 "정상"으로 돌아간 까닭이다.

지금 국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비정상성의 정상화"와 같은 오묘하고 애매한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와 공감능력, 그리고 공직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뻔한 사실에 대한 인지 능력이다.

영업시간: 5pm - 2am 7days

# LIMELIGHT STAGE + STUDIOS 노래방

## 맥주·와인·사케제공

과일, 생수, 칩과 견과류를 무료제공

## 최신형 오디오시스템과 최신모델의 태진 노래방기기 완비

깨끗하고 산뜻한 룸 인테리어  
크고, 작은 파티에 적합한 장소

보스톤 그린라인 Boylston 역과 오렌지라인 Chinatown역  
204 TREMONT STREET BOSTON MA 02116  
[www.limelightboston.com](http://www.limelightboston.com)  
예약문의: 617-423-0785



에이치플러스

# 양지병원



## 고국방문 건강검진

〈세상과 현재에 희망을 주고 인간존중의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한다(Hope • Humanity • Healing)〉는 병원이념을 그대로 옮겨 담은 힐링인터리어로 새롭게 변화된 양지병원에서 뉴스코리아와 함께 고국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명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 양지병원은 350명상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대폭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 양지병원

151-852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10-715



###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10만원 / 여: 220만원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추가항목	여성 추가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뇌 MRA	1. 뇌 MRA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뇌 MRI	2. 뇌 MRI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관상동맥 CT	3. 관상동맥 CT
4.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흉부 (폐) CT	4. 흉부 (폐) CT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5. 심장 초음파	5. 심장 초음파
6. 요 검사 10종	6. 갑상선 초음파	6. 갑상선 초음파
7. 체지방 검사	7. 경동맥 초음파	7. 경동맥 초음파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독수촬영)	8. 전립선 초음파	8. 부인과(자궁) 초음파
9. 소화기 검사 (위, 대장 수면 내시경)	9. 골밀도 검사	9. 유방 초음파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실태)		10. 골밀도 검사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입원 종합검진

남: 60만원 / 여: 70만원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추가항목	여성 추가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흉부 (폐) CT	1. 갑상선 초음파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전립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골밀도 검사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독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대장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실태)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당일 종합검진

남: 45만원 / 여: 55만원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추가항목	여성 추가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흉부 (폐) CT	1. 갑상선 초음파
2. 청력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전립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골밀도 검사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독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대장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실태)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검사시간

- 당일 종합검진: 8:30am ~ 12:30pm
- 입원 종합검진: 2:30pm ~ 12:30pm(1박 2일)-1인실 (오전 내시경 진행)
- VIP 종합검진: 10:00am ~ 12:30pm (1박 2일)-1인실 (오전 내시경 진행)

### ★ 특별혜택

- VIP 검진자: 공항 Pick up Service 진행
- VIP 및 입원 검진자: 입원 물품 세트 지원

상담 및 문의 : 617-583-233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人

## 구(救)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나(바울사도)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求)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求)하여 저희로 구원(救援)을 얻게 하라:  
 even as I try to please everybody in every way, For I am not seeking my own good but the good of many, so that they may be saved.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Follow my example, as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 고린도전서 10:33, 11:1

세월호에 탔던 안산 단원고 교사는 14명 그 중 12분이 숨지거나 실종 됐다. 5층(세월호 의)에 있던 전수영, 김조원, 이지혜, 최혜정, 유니나 등 여선생 5명은 학생들을 구(求)하려 4층으로 내려간 것이 마지막이었다.

4층엔 남교사 6명이 있었는데 남윤철, 이해봉, 김응현, 박육근 교사 등 4명의 선생들은 시신(屍身)으로 확인됐는데, 양승선, 고창석 두 교사는 실종 상태.

5층에 있던 여교사들이 4층으로 내려갔을 때는 세월호가 40°-50° 로 기울 상태. 세월호 선원들이 진도해상교통센터(VTS)와의 교신에 따르면 “배가 기울어져서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없다. 조타실에서도 벽을 잡고 겨우 버티고 있다” 는 것.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이들 구명조끼 챙겨주어 탈출을 돕고자 절벽경사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 간 것.

숨진 최혜정 교사는 SNS로 학생들에게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라는 글만 남겼다.

전수영 교사는 어머니께서 전화가 걸어오자 “아이들 구명조끼 입혀야 해” 란 대답이 유언이 돼 버렸다.

남윤철-이해봉 두 교사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준 후 비상구까지 안내하곤 다른 학생들을 더 구한다며 아래층으로 내려 간 것이 영별이 됐다.

마지막 양승선 교사는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 제자에게 입힌 것이 영영 이별이었다.

14명 교사 중 해경과 어민에 의해 구조된 사람은 3명, 5층에 있던 이해련 교사는 4층으로 내려가다 갑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구조됐다.

강민구 교감은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학생들에게 “올라 오라” 소리치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구조됐다. 저혈당성 빈혈을 갖고 있던 강 교감은 “살아 나왔다” 는 죄책감에 눌러 사고 이를 후 자살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그 배후와 조종역이 조위 구원파 침례교 유병언 목사 또는 전 세모그룹 회장(73세)이 관여 돼있다.

문제는 구원(救援) 곧 기독교의 교리를 내걸고 축재를 해 왔다는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유병언 회장과 큰 아들 대균(44세)씨의 신병확보를 검찰이 실패 했다. 인천지검 특별 수사팀(김희종 차장 검사팀장)이 유병언 부자가 은신하고 있을 금수원 기독교침례회에 21일 하오 총 7대의 차량(승용차 5대, 미니버스 1대, 범무부 호송버스 1대 등)에 검사, 수사관 70여명이 나눠 타고 진입, 구원과 본영을 살살이 뒤졌으나 실패했다.

금수원 내 요양원 주변에 설치된 CCTV 등 검찰 압수 수색상자 8개 분량의 관련자료는 압수했다.

유병언 회장의 구인장, 아들 대균씨 체포영장 및 금수원 압수 수색영장 등을 정순신 인천지검 특수부장, 검거 팀장으론 주영환 외사부장의 총괄 지휘로 진행됐다. 금수원 밖에는 경기지방 경찰청 소속 15개 중대 1,200명의 경찰병력이 금수원 일대를 호위-만약의 사태에 대비 했었다.

救: 正也 정야: 바를 구. 正: 方直不曲 방직 불곡. 바를 정. 이 ‘바를 정’ 은 “하나님(-)의 브레이크, 정지(止) 신호” 다.

하나님의 브레이크(止: Brake)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but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창세기 2:17. 이 하나님의 정지에 걸린 생명을 영원히 살리려는 것이 곧 救다. 救자는 “求: 索也 색야: 구할 구 + 攴: 小擊 소격: 칠 복” 두 글자로 합성돼 있다.

求: ‘구할 구’ 자는 ①十: 열을 표시하는 글자이나 십자가(十) 모양을 그리고 ②그 밑으로 물, 水: 地之血氣 지지혈기, ‘물 수’ 곧 물이 흐른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十)에서 흘린 피” 를 求하라는 것. 이 물(水)을 예수님 자신이 밝히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 요한복음 4:14.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스톱시킨 “一止 곧 죽음” 으로부터 영생을 데 찾는 것. 곧 ‘구원(救援)’ 의 본체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곧 인간의 죽음을 견어 내고 영생(永生)을 입혀 주는 구원인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영생은 곧 영원한 구원은 “내(예수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永生)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Just as the living Father sea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 요한복음 6:54, 55, 56, 57.

예수님, 곧 인류 구원의 핵심 주역이 선언하신 것.

유병언 목사의 구원이 수천억, 수천만 달러 씩 부정축재 또는 금력에 의한 구원으로 세월호 참사를 빚은 육신의 후유증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뜻을 바로 잡을 순 없을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유병언 목사의 구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유병언 구원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 마태복음 6:24.라는 예수님 즉 구원(救援)의 주관자와 정면으로 맞선다.

예수님과 맞서면 세상법(法)을 지키지 못한다.

금수원을 살살이 뒤져도 숨어서 못 나올 뿐 아니라 법을 피해 다니는, 아니 숨어 있는 유병언 구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숨어 다니지 말고 늦기 전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치아교정	•소아치과
•사랑니발치	•치아미백
•임플란트수술	•악관절(TMJ)
•보철/비니어	•수면진정마취
•신경치료	•3DX-Ray(CT 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통 상담  
(2013-10-14까지)

Dr. Jeong Sook Lee (장수숙 선생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문 선생님)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민 선생님)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

마트에서  
5분 거리



DENTAL IMPLANT CENTER  
FIRST CHOICE DENTAL GROUP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 유병언 일가 신병확보 실패, 수사 난조

구원파 신도 자택에 은신 가능성, 추적범위 전국 확대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숨어 있다가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난조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1일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유 회장이 금수원을 나가 구원파 신도 자택 등에 은신 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제 검찰의 추적 범위는 전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 수사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순교까지 거론하며 사수를 천명했던 신도들이 수사기관에 금수원을 내준 배경이나 1992년 초원복국집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가 남이가' 플래카드 등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검찰, 유병언 부자 신병확보 실패

검찰이 유 회장과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21일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진입해 8시간 동안 수색 작전을 펼쳤지만 결국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2차장검사)은 21일 오후 8시쯤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과 그의 장남 대균씨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 회장 추적에 필요한 8박스 분량의 자료를 금수원으로부터 압수했다.

영장이 집행되는 동안 경찰은 기동대 1300명을 동원해 금수원 정문과 주요 진입로에 배치했고, 경기소방본부도 구급차와 소방차 등 8대를 인근에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검찰의 수색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들과의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회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지난 17일 금수원에서 진행됐던 토요일 예배 당시 금수원을 찾았던 신도들의 차량을 이용해 금수원을 빠져 나간 뒤 신도들의 주거지 등에 은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유 회장과 대균씨의 소재와 관련된 제보를 수집하는 한편 구원파 신도들의 주거지 등을 탐문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 횡령·배임, 조세포탈에 불법대출 의혹

검찰이 청구한 유병언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횡령·배임 1300억여원, 조세포탈 140억여원 등 1400억원이 넘는 범죄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병언이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상표권료나 컨설팅비, 사진값 명목으로 계열사 및 관계사 자금을 횡

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편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에서 횡령한 돈의 일부는 비자금으로 조성됐거나 미국, 프랑스 등 해외의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보강수사를 거쳐 유병언 일가로 흘러들어간 불법 자금이 국내외에 은닉한 비자금 등을 추가로 찾아내면 범죄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유병언 계열사 70곳은 42개의 금융사로부터 3,700억원대 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외화 밀반출 및 재산국외도피, 국내의 부동산 차명 보유, 회계분식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회사돈 151억원을 빼돌려 유 회장 일가를 지원한 송국빈(62) 다관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 오대양과 무관 천명, 금수원 수색 허용

유 회장이 은신했던 곳으로 알려진 금수원은 면적(46만6천여㎡)이 축구

장 30개 크기와 맞먹는 정도의 규모로 서 전국 구원파 신도들이 매주 토요일 오후 금수원에 모여 성경공부와 예배를 하고, 여름에는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관다 전국 대리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신도들과 함께 합동수련회에 참가해온 구원파의 핵심시설이다.

이 금수원을 사수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며 결사항전을 외치던 구원파가 검찰에 빗장을 풀 이유를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구원파와 유 회장이 오대양 집단자살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검찰이 천명해, 교회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요구를 검찰이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유 회장 검거가 검찰 수사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금수원이 그 첫 번째 방해물로 여겨지며 비난 여론이 비등한 것도 금수원의 문을 연 중요한 이유로 보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부터 쏟아지는 끊이지 않는 시선이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 탄압을 이유로 더이상 법 집행을 막을 경우 공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사이버 종교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유혈 충돌시 후폭풍은 감



지난 21일 검찰의 금수원에 진입할 당시 구원파는 금수원 정문에 '우리가 남이가' 플래카드를 달아 눈길을 끌었다

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구원파 내부에서는 '유 회장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도는 구원파 내에서 유 회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높는데 잇따라 출석에 불응, 죄 없는 신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기춘 겨냥, '우리가 남이가'

지난 21일 유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검찰이 금수원 내부로 진입하자 구원파는 금수원 정문에 흰 바탕에 진분홍 글씨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를 새로 달아 일반인의 궁금증을 다시 한번 자극했다.

'우리가 남이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연루됐던 1992년 '초원복집 사건'에서 등장한 표현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 비서실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은 부산 초원복집에서 비밀 회동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서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지역감정

을 자극해 영남권 득표율을 높이자"라는 모의가 이뤄진 사실이 도청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앞서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검정 플래카드를 걸었던 구원파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내용으로 또 다시 김 실장을 겨냥하는 모습이다.

구원파가 김 실장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을 자극하고 나선 것은 '종교탄압' 프레임에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다.

구원파는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종교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신들은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이며 권력이 자신들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다.

구원파가 1991년 오대양 사건 재수사 때문에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당시 김 실장과의 악연은 시작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바로 김기춘 실장이고 구원파는 당시에 '종교탄압'이라는 논리로 반발했다.

hs0h@bostonkorea.com

# 길환영 사장 사퇴거부, KBS사태 장기화 조짐

## 간부급 보직사퇴·제작거부로 전반적 제작 차질 위기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청와대의 보도 간섭 의혹으로 불거진 퇴진 여론에 길환영 KBS 사장이 사퇴 거부와 강경 대응 의지를 사실상 밝히면서 KBS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길 사장은 지난 21일 발표한 'KBS 현안 관련 특별 담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길 사장은 "불법 선동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장보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KBS 노조와 본부노조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어떤 불법 행동에 대해서도 제 직을 걸고 그 누구보다 엄중하게 사규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 사장은 1시간 가량 이어진 담화에서 지난 19일 기자회견 때와 마



지난 21일 사내방송을 통해 최근 KBS 양대노조의 사퇴 요구 및 제작거부,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등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길환영 KBS 사장

찬가지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와 노조의 주장 등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으며 "앞으로 임직원과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길 사장은 사퇴 거부 의사도 거듭 확인했다. 길 사장은 "온 신병을

바쳐 KBS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때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과 폭력에는 절대로 사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 사장이 사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자 KBS 기자협회(협회장 조일수), PD협회(협회장 홍진표) 등은 전면적인 대응에 나선 태세다. 당장 기자협회는 지난 19일 오후 1시부터 20일 자정까지로 한정했던 제작거부를 길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보도본부 부장 및 팀장급 68명이 보직을 사퇴했으며 뉴스앵커 13명이 제작거부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뉴스 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본부뿐 아니라 간부 중 업무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본사 팀장은 308명 중 절반이 넘는 57%(178명)가 공개적으로 보직 사퇴를 했

고, 특히 사장 직속 부서인 대외정책실과 수신료현실화추진단 팀장들을 비롯해, 기술본부 내 팀장 전원도 보직을 사퇴하면서 KBS의 거의 모든 부서가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KBS PD협회도 이미 제작거부를 결의한 상황이며 교양국, 예능국, 드라마국 등 프로그램 제작국 팀장들도 대부분 보직을 사퇴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뉴스 외 다른 방송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제작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처했다.

KBS 양대 노조는 파업을 위해 이날 각각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27일까지 닷새간(휴일 제외),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새노조)는 23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1노조에는 기술직군을 중심으로 2천500여명이, 새노조에는 기자·PD 직군 중심으로 1천200여명이 소속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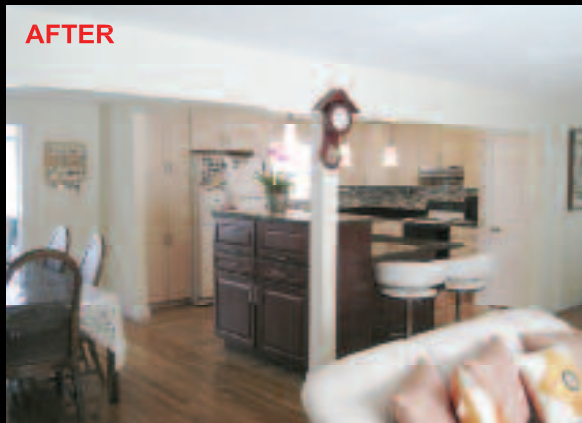
KBS본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사장 신임투표에서 길 사장이 97.9%라는 압도적인 불신임을 받은 만큼 파업 찬성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s0h@bostonkorea.com

© 2014 OTK DeCon Group. All rights reserved.



Cambridge, MA



AFTER



BEFORE

Lexington,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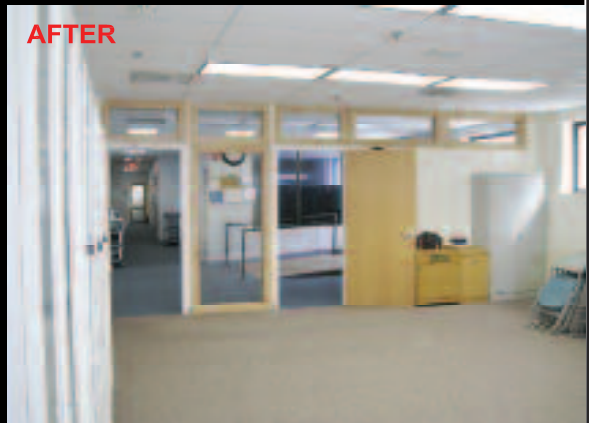


AFTER



BEFORE

Topsfield, MA



AFTER



BEFORE

Woburn, MA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 상담 및 견적

하우스 리모델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otk212@gmail.com 617.620.8242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 - **엔티비**



엔티비 학생할인

# 폭탄세일!

# \$1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 학생 할인

2014년 5월1일-31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엔티비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7.99

###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1년약정)

###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1년약정)



### 3. 추가로 설치하세요!

2nd, 3rd 엔티비 추가 장비 할인

추가시 대당 \$9.99(홀드백 Free 상품/총 3대까지 가능)



KBS, MBC, SBS, CJ & M

[www.enjoyandtv.com](http://www.enjoyandtv.com)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콘텐츠, 이제 엔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우리 문화 잠재력을 파괴하는 미국 행위입니다.

# HURAM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제2탄

**ING** 아이앤지성형외과 / 피부과  
PLASTIC SURGERY/DERMATOLOGY

## 리프팅 동안성형

- 안전한 마취시스템
- 자연스러운 동안효과
- 주름제거
- 얼굴축소 V라인효과
- 피부 탄력증가

아이앤지만의 세월을 거스르는 아름다움  
얼굴 전체를 생기있고 탄력있게



• 아이앤지성형외과실제 수술 사례사

· 수술부위: 눈매몰 + 눈썹거상 + 하안검 + 영독스 + 코 + 리프팅

아이앤지 특별 이벤트

☑ 눈 상·하안검 성형 ~~180만원~~ → **120만원**(상안검) / **110만원**(하안검) (부가가치세별도)

☑ 눈 매몰 + 눈썹거상술 ~~240만원~~ → **168만원** (부가가치세별도)

**HOT** ☑ 눈 밑 지방재매치 + 스킨절제술 ~~240만원~~ → **168만원** (부가가치세별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모,  
**아이앤지성형외과**와  
함께라면 'ING'입니다

### 전문의 최재혁

아이앤지성형외과 대표원장

- 연세대학교 의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 석, 박사
- 성형외과 전문의
-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 대한 미용성형외과 학회 정회원
- 눈,코 성형연구회 회원
- 대한 유방성형 연구회 회원
- 대한 두개안면 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 미용 성형외과학회(IPRAS)정회원



**주최** 휴람 / 아이앤지 성형외과

**행사기간** 2014년 3월 ~ 6월까지

**미국문의** 425. 774. 1004

**한국문의** 하와이매들턴 담당 김수남: 070-4141-4040  
카카오톡 상담: 010-3469-4040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sup>TM</sup>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 '유해 고전'에 경고문구 넣어달라 美대학가 논란

(서울=연합뉴스) =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나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등의 고전문학이 독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유해성을 경고(Trigger Warning)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미국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다.

20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베니스의 상인'은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복잡한 애정관으로 독자들의 정신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각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 대학의 한 학생은 미국 현대문학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위대한 개츠비'에 "잔혹하고 거칠며 여성 혐오적인 다양한 폭력"이 난무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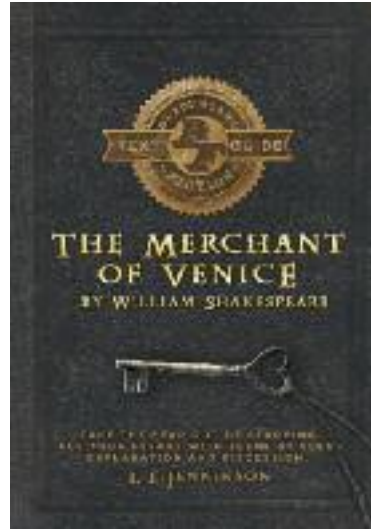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대해서도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고 문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애초 인터넷 블로거들로부터 비롯됐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상아탑으로도 번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

아 주립 산타 바바라 대학에서는 학생회가 경고 문구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시간 대학, 펜실베이니아주 브린 모어 칼리지, 오하이오주 오벌린 대학, 뉴저지주의 럿거스 대학, 캘리포니아주 스크립스 대학, 매사추세츠주 웰슬리 대학 등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고 문구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작품이나 영화가 참전자나 성폭행 피해자처럼 정신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좌),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우)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두가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캠페인 단체인 개인 교육원리재단은 경고 문구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점점 더 과잉보호를

받는 삶의 한 증후군이라고 꼬집었고, 우파 성향의 데일리 콜러 웹사이트는 "권위주의적 좌파가 캠퍼스의 의사표현을 감시하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폄하했다.

## '당신이 뭘 보고 듣는지 안다' 페이스북 소리인식 기능 논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페이스북은 이미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랑 사귀는지, 집이 어디인지 다 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까지 (엿)듣는단 말인가."

미국에서 곧 출시되는 스마트폰용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앱)의 새 버전을 놓고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새로이 추가되는 '소리 인식 기능'이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1년에 걸친 개발 끝에 발표한 소리 인식 기능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페이



스북 앱을 사용할 때 기기의 내장 마이크가 사용자 주변 소리를 인지하는 게 골자다.

앱은 이 소리를 분석해 사용자가 현재 듣는 음악이나, 보는 TV 프로그램·영화가 무엇인지 15초 안에 판별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 '나는 이 노래(드라마)를 듣고(보고) 있어요'라고 함께 올릴 수 있게 해 준다.

페이스북이 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광고주들에게 12억 명이나 되는 사용자에 대한 더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방송 중인 TV쇼를 인식하기 위해 미국 160여개 방송국과 계약을 맺고 오디오 정보를 얻는 등 공도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안보국

(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으로 시끄러웠던 미국에선 이 기능이 공개되자마자 '페이스북이 대체 어디까지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는 건가'란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스마트폰이 당신을 엿들을 수 있다는 걸 친절히 상기해줬다'는 블로그 기사에서 "공식적인 통로로 설치한 앱을 통해 해커나 국가기관이 당신이 하는 일을 들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분명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비판을 받을

것"이라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블로그도 전문가를 인용,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측은 "(음악·TV쇼가 아닌) 다른 소음이나 사람들의 대화는 판별되지 않는다"며 "또 사용자는 기능을 꺼놓을 수 있으며, 판별된 음악 등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관련 정보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IT 매체 매셔블(Mashable)은 "만약 사용자가 친구와 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페이스북은 여전히 사용자가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banghd@yna.co.kr

## 웹스터 대학사전에 '셀피·해시태그·빅데이터' 등재

(뉴욕 AP=연합뉴스) = 셀피(selfie)와 해시태그(hashtag) 등의 영어 단어가 미국의 대표적인 영어 사전인 메리엄웹스터의 대학생용 사전(Collegiate Dictionary) 최신판에 등재됐다.

새로 등재된 150개 단어 중에는 디지털 및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단어가 상당수 포함됐다.

'셀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려고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찍은 자기 사진을 의미하고 '해시태그'는 트위터 글을 분야별로 분류하기 위해 '#' 기호와 함께 쓴 특정 단어나 문구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스포일러 얼러트'(spoiler alert·영화의 줄거리 등을 미리 밝히는 스포일러가 있음을 알려주는 사전 경고), '트웁'(tweep·트위터 사용자), '언프렌드(unfriend·SNS상의 친구목록에서 제외하는 것)', '핫스팟'(hot spot·와이파이가 되는 지역) 등이 수록됐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기금을 모으는 것), '빅데이터'(big data·데이터의 생성량과 형식 등이 방대한 데이터),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컴퓨터와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경제·교육·사회적 격차) 등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포'(pho·베트남식 수프), '터더컨'(turducken·뼈 없는 칠면조 고기 안을 뼈 없는 오리 고기로 채우고 또 그 안을 뼈 없는 닭고기로 채운 요리), '푸틴'(poutine·육즙소스인 그레이비와 치즈커드를 올린 감자튀김) 등 음식에서 유래한 신종 단어들도 들어갔다.

이밖에 '스팀펑크'(steampunk·19세기를 배경으로 증기 기계가 등장하는 문학 장르), '베이비 범프'(baby bump·임신한 여성의 부푼 배) 등이 포함됐다.

gatsby@yna.co.kr

## 알래스카항공, 북미 고객만족도 7년째 1위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북미 항공사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알래스카항공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인 JD파워의 연례 북미 항공여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대형 항공사 부문에서 알래스카항공은 1천점 만점에 평균 737점을 받아 세계 최대의 항공사인 델타항공(693점)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이어 아메리칸항공(684점), 에어 캐나다(683점), 유나이티드항공(658점) 순이었다.

저비용 항공사 부문에서는 제트블루가 1위를 차지했고 사우스웨스트, 웨스트제트, 에어 트란 순으로 평점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과 캐나다 국적 항공사 이용객 1만 1천370명에 게 요금, 기내 서비스, 탑승, 예약, 수속, 수하물 처리, 승무원 등에 대한 반응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알래스카 항공이 7년 연속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것은 요금, 특히 마일리지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 연매상 \$600,000+, Full 리커 면허증
-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 보스톤 변화가 좋은 장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북쪽 큰 몰안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픽아님)
-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 아침, 점심(6일) 매상 \$180,000 주변에 아파트 신축 중
-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 로드아일랜드 큰 몰 안 모자+악세사리, 연매상 \$500,000+
- 보스톤 남쪽 피자 연매상 \$300,000 한국식당으로 전환 가능

-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20,000
-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론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145,000 고급동네
- 보스톤 론드로맷 연매상 \$70,000 소유자 부재
-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 론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자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이드업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2014 보스톤교육원 여름방학 SAT I Program

### I. 내실있는 Program 구성

- 문제 유형별 수업 후 후반 실전 test 위주 수업
- 매일 단어 및 실전문제 test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 프로그램(9:00~5:30)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home work, 매주 test 결과 보고서 발송)

### III. 합리적인 수강료

- 정규반: \$950 / session (3주)
- 주말반: \$450 / 3주

### II. 실력있는 강사진

- **Critical Reading**  
영문학박사  
다년간 SAT 강의 경력의 실력있는 강사
- **Writing**  
15년 이상의 강의 경력  
에세이 쓰기 및 교정 전문가
- **Mathmatics**  
공학박사  
오랜 경험으로 학생들 취약점 파악 후 지도

### IV. 다양한 선택 가능성

- Session 별 각기 다른 수업 및 test 자료
- 실전문제 풀이 중심 주말 특별반
- New SAT (2016년 시행) 준비반

\* 저학년을 위한 writing, reading clas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services@bostonedu.org